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西南軍最高首腦部 反中央態度決定

二中全會의 決議를 全部否認

獨立政府樹立도 計畫

【廣東十五日發同盟】 二中全會에 있어서 中央의 對西南處置策에 對하야 陳濟棠 李宗仁氏以下 西南軍官最高首腦部는 十四日夜부터 陳公館에서 軍事會議를 開催하고 時局對策에 對하야 協議를 계속하고잇든바 十五日朝의 第三次會議에서 비로소 最後的決意를 表明하게되어 左記事項을 決定發表하였다

一、西南側의 五項의 草案을 無視한 二中全會의 決議는 全部此를 否認함

二、抗日救國에 關한 最後通牒을 發하야 西南側의 態度를 宣明함

三、機宜를 見하야 獨立政府樹立을 宣布함

四、廣西派要人의 談에 依하면 西南獨立政府樹立은 十日以內에 實現될터인데 政府主席에는 蕭佛成氏 軍事委員會主席 陳濟棠氏 外交委員會主席 羅文幹氏 財政委員會主席에는 區芳浦氏가 各其就任하기로 內定되엿다한다 그리고 陳濟棠氏는 抗日救國軍總司令 李宗仁氏는 同副司令을 兼任할터로 西南執行部及西南政務委員會는 獨立政府의 樹立으로 自然消滅될터이라

非常會議召集을 全國에 通電

抗日主張貫徹次

【廣東十五日發同盟】 十五日朝西南統制軍首腦部會議에서 決定한 西南獨立政府樹立決議에 基하야 西南執行、政務兩委員會는 十五日午後五時 中央、監察兩委員會委員、全國將領、民衆團體에 非常會議召集通電을 發하엿는데 通電內容은 左와如하다

西南執行及政務兩委員會는 抗日救國의 主張을 貫徹하고 또 中央國民黨의 革命的使命達成에 繼續努力하기爲하야 最短期間內에 中央執監兩委員會 非常會議를 廣東에서 開催하고 曩者二中全會에 提案한 西南側의 五項을 再次提出하야 此를 實行케하는同時에 今後에잇서 救國救亡의 大計를 討議決定하려한다 그리고 抗日救國 民族解放及 抗日의障碍와 國內의奸漢을 排除하기爲하야 全國民의 先驅인 各委員의 參加하기를 切望하는 바이다 그리고 今回의 非常會議에는 各中央執行委員 中央監察委員 外에 特히全國의 抗日軍隊及民間抗日團體의 參加도 要望하고잇는바 中央의二中全會에對抗하야 西南에獨自의 中央執監會議를 開하야 抗日을 標榜하고 對手中央에 抗戰하려한다

고 正式發表하였다 그리고 張達 黃延貞 繆培南 責任等廣東軍各師長은 十五日夜 連名으로 中央側에 第四路軍으로서의 新任命을 拒否하고 陳濟棠氏를 어데까지 擁護한다는 通電을 發하엿다

兩廣軍에 對하야 攻擊開始를 命令

兩廣聯合軍正副總司令名義로

【廣東十五日發同盟】 陳濟棠氏는 十五日午前十一時 西南軍總司令部에서 李宗仁氏와 約二時間에 亘하야 兩廣軍共同作戰에 對하야 最後的協議를 遂한 結果 同午後三時 陳李兩氏는 兩廣聯合軍正副總司令의 名義로 廣西、廣東兩廣軍에 對하야 中央軍에 對한 攻擊開始命令을 發하엿다 그리고 軍事當局의 談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十三日夜半 南京의 中央軍官學校에 何應欽氏 朱培德氏 劉峙氏 錢大鈞氏를 招集하고 西南討伐에 對하야 協議한後 福建、江西、湖南、貴州四省에 駐屯하는 中央軍에 對하야 總進擊令을 發하엿다 十四日夜來廣西의 湖南、廣東、湖南及 廣東、江西의 三省境에서 이미 前哨戰이 開始되엿다 한다

陳濟棠氏擁護를 西南將領通電

中央側新任命拒否

【廣東十六日發同盟】 西南政府委員會는 十五日 臨時緊急會議에 基하야 陳濟棠氏를 抗日救國第一集團 第四師團 兩軍總司令에 李宗仁氏를 同副司令에 任命하

國防費公債依存 大藏當局은 反對

陸藏兩相折衝과 首相裁斷注目

【東京電話同盟】 陸軍에서는 厖大한 國防計劃의 財源을 充當하기爲하야 大藏當局에 單純히 增稅만에 依存치말고 積極的으로 公債增發과 官業擴張을 圖하기를 要望하고잇는데 大藏當局은 現下의 國際時局에 鑑하야 國防豫算査定에는 勿論 相當한 程度로 이에應할用意가 잇스나 增稅 公債發行에는 스사로 財政上限度가잇고 產業進展에 伴하는自然增收를 어느程度까지 豫想한다고해도 今後더욱增大할國防費를 全部公債增發에 依하야充當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하다하야 反對意向을 漏하고잇다 豫算閣議에잇서 馬場藏相이 說明한 歲入計畫에 關하야 國防費其他一般國策實現要求가 閣議에 提出될 境遇 陸軍이 積極的으로 部內의 要望을 代表하야 國防費와 併行하야 產業振興 國民生活安定에關한 諸政策을 實現하기爲하야 歲入計畫에 對하야 發言할境遇에는 馬場藏相과의 間에 意見衝突을 招來하야 現內閣은 豫算編成에잇서 大難關에 逢着하리라하야 其推移如何에 依하여는 政局動向에도 多大한 影響을 生할 虞慮가 잇스므로 馬場藏相과 寺內陸相의 政治的折衝及廣田首相의 裁斷如何는 자못 注目되게되엿다

海峽條約改訂에 對해 外海聯合協議

【東京電話同盟】 몬트르海峽條約改訂會議에 對한 日本政府의 態度를 決定하기爲하야 十五日午後四時부터 外務省第一會議室에서 外務海軍聯合協議會를 開하고 外務省側歐亞局加瀨第一課長、同尾形事務官、小林條約局第一課長、海軍側阪本第三課長、同岡大佐 柴少佐 出席하야 六時半까지 約二時間半 重要協議를 遂하엿스나 아직 英蘇兩國의 對立으로 會議는 討議의 基礎가 될만한 妥協案이 업슴으로 專혀 英蘇兩案을 組上에 올려노코 仔細檢討한 結果 左와如한 結論에 到達하엿다

一、非聯盟國인 日本의 立場을 無視한 如한 條約이라면 斷然條約不參加를 表明함

一、日本側의 特別한 立場을 主義上으로라도 容認할形式을取할境遇 其內容을 檢討하야 [illegible](條約의基礎)으로 參不參의何者를決定할

右兩件의方針을 決定하게되엿는데 目下前者가 決定될 悲觀的情勢에 잇슴으로 近日中에 몬트로會議는 成立될 可能性이 잇슴으로 條約草案이 成立되는대로 右會議에 附議하야 日本의最後的態度를 後藤大使에게打電할터이다

文部省에서 決定한 義務教育延長理由

【東京電話同盟】 文部省은 十五日午後別項과如히 青年學校代用을承認하는 義務教育年限延長案을 決定하엿는데 其理由는 左와如하다

一、兒童으로부터 青年에로의過渡期로 十三、四歲의 少年少女에對한敎育은 자못重大하다 特히 壯丁檢查其他의 調查에 依하면 體位德性 智能에 어느方面에서 보드라도 其時代의敎育이 重要한것을 立證한다

二、義務敎育年限의延長에依하야 敎育內容을 改善할수잇다 卽 從來尋常小學校에서 國民敎育上 必須事項으로 課하엿든 敎材中兒童의理解할수업는것을除하고 此를高等小學校에 옴길수잇는同時에 學校에서 土地의狀況에 應하야 敎育實際化를 圖할수잇다

三、國防及 產業上으로 보드라도 八年의 義務敎育의 必要가잇고 此를 兵器의 進步產業의 發達等으로 尋常小學校卒業만으로는 就職困難한 事實等에 鑑하야 반드시 必要하다는것이 立證된다

四、敎育의 機會均等이라는點에서 생각하드라도 從來重要한 靑年前期의 敎育을 밧지못한者에對하야 보담더 노픈 敎養을 與하야 國運進展에 寄與할수잇는 靑年大衆의 敎育을 大成함이 必要하다

五、現實事實으로 尋常小學卒業後 高等小學校其他의 上級學校에 進級하는者가 大體에 達하는狀況으로 보드라도 此際義務敎育八年制實施는 無理가아니고思惟된다 그러나 當分間은 義務就學하는一方 敎學하는靑年學校普通科를認함이 妥當할것이다 諸外國의 實例를보드라도 義務敎育을 六年으로한나라는 니카라과 에콰돌 에스토니아 파나마 芬蘭等에不過하고 其他는大槪八年或은 其以上이다 그리고 이를더욱延長하는 傾向이보인다

世界各國은、玆에 伊太利아페 屈服

對伊制裁撤回記念祝賀日에

뭇솔리니氏의 大氣焰

【羅馬十五日發同盟】 半歲에亘한 經濟封鎖로부터 解放된 伊太利는 十五日 全國津津浦浦에 國旗를 揭揚하고 記念祝賀를 行하엿다 政府는 十五日을 期하야 從來에 實施하여온 石炭電氣節約令의一部를 撤回하는同時에 商店도午後十時까지 開店을 許可하엿기 때문에 밤에드러 羅馬市內는 오래간만에 赫赫히 電燈이켜저活況을 呈하게되엿다 意氣揚揚한 뭇솔리니首相은 午後七時半 베네치아宮발코니에 나타나 熱狂된 群衆에 左와如한 演說을 行하엿다

七月十五日은 世界各國이 制裁를 撤回하고 伊太利아페休戰의 白旗를 揭하게된날이다 이것은 伊太利에對하야 屈服인同時에 經濟的으로의 復讎를 意味하는것이다 經濟分野에잇서 伊太利의 이意外의 勝利는 老幼男女의 伊太利國民全體의것이다 伊太利國民은 制裁가 實施된後 約半歲에 亘하엿스나 一人이라도 이에屈하지안코 [illegible]

土民의 襲擊으로 에國總督戰死說

但伊太利當局은 否定

【羅馬十五日發同盟】 에디오피아遠征軍의 南軍司令官으로 勇名을 날린 에디오피아 總督그라치아니元帥는 南部要衝하랄市에서 에디오피아土民의 襲擊을맛나 重傷을負한後 逝去하엿다고傳한다 但右報導는 外國側의 消息에不過하고 伊太利政府는 五日夜右報道를否定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當局에는何等入電이업고 그라치아니元帥가 戰死하엿다는 情報는全혀 信用할수업다

英地中海艦隊撤收로 리비아增强部隊撤歸

土耳其、希臘間의相互援助는理解不能

伊國政府當局의言明

【羅馬十五日發同盟】 伊太利政府當局은 리비아駐屯三個師의撤收實施에當하야 十五日午後 左와如히言明하엿다

伊太利政府는 昨秋英國政府가 地中海上의 艦艇을 增强한데對抗하야 自衛上리비아駐屯軍을 增駐하엿다 이에 英國政府가 地中海增强艦隊를 撤收하엿다고傳하는以上 伊太利政府도 리비아增駐部隊를 本國에 歸還식혀 地中海情勢의 正常化에 協力할 方針이다 英國政府가 依然、土耳其、希臘、유고슬라비아三國政府와 地中海相互援助協約을 保持하고잇스나 伊太利政府는 何等報復的手段을 考慮치안는다 今日此等各國政府의 態度는 全혀 諒解하기 困難한바이다

日本抑制할길은 英米蘇의 協力뿐

米外交協會反日的報告發表

【華盛頓發電通】 米國에잇서서 가장 權威잇는 外交協會는 十二日 「太平洋에잇서서의 衝突」이란 레포트를 發表하엿는데 其中에 米英蘇가 提携하야 日本의 侵略을 抑制하지안흐면 日本의 對中政策은 必然的으로 英米蘇三國中 어느나라와의 사이에 重大한 戰爭을 惹起할것이라고 論하야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잇다 右 레포트는 더욱 今日에 關한 計劃이 實行되지안는限 聯盟이 無力하게되여 日本의 進出을 阻止할수업고 英米蘇의 共同動作만이 日本의 侵略을 防止할수잇는 때 一方 日中間에 正常한 貿易關係의 維持 原料供給國의 中國의 農業、工業 地로서의 開發을 保障할것이라 日本에 對하야 權利를 보아 米國政府가 不遠한將來에 太平洋에잇서 戰爭의 勃發을 避하기爲하야 愼重考慮를 加할것이 充分히 必要하다고 述하엿다

臺灣總督後任은 小林海軍大將

總務長官엔大塚氏有力

【東京電話同盟】 永田拓相은 就任以來 外地長官의全面的更迭을 斷行하야 外地行政一新을 企圖하고잇든바 近近其實現을보게되엿다 卽一時文官總督과 武官總督의對立으로進退問題는 遷延되여잇든 中川臺灣總督은 臺灣拓殖會社社長의人選을終了하고 去十四日 辭表하엿는데 政府의意向을 充分察知하고잇슴으로 臺拓設立에 關한 一切準備가 完了되는 機會에 八月에 再次上東하야 正式辭表를提出하리라고 觀測된다 同時에 平塚總務長官도 이와前後하야 進退를 決하리라고 觀測되는 中川總督의 後任은 小林海軍大將이 가장有力하고 總務長官의後任은 大塚警保局長의 呼聲이 高하다

制裁撤回記念 全國에記念祝賀會

【羅馬十三日發同盟】 伊太利政府는 十五日 聯盟各國이 前後半歲에亘한 對伊經濟制裁를 撤回하야 完全히 經濟不安도 解消되게되여 全國的으로 記念祝賀를 擧行하엿다 當日 뭇솔리니首相의 命令에 依하야 午前八時 一齊히國旗를 揭揚하고 國內各新聞紙는 모다一齊히 「伊太利는 바야흐로 經濟的自由를 戰取하엿다」고한 社說下에 勝利祝賀의 記事를 揭載하는一方 팟시스트黨은 뭇솔리니首相에 對하야 特히 左의祝辭를 보내여 謝意를表하엿다 閣下의 不撓한 意志에依하야 伊太利國民의 [illegible] 新帝國을 [illegible] 完全히勝利를 [illegible]하엿다

英政府正式通告

十五日日米兩國政府에

에스카레터條項援用

【倫敦十五日發同盟】 英國政府는 十五日 日本政府及 米國政府에 正式通牒을 發하야、一九三〇年倫敦條約第二十一條에스카레터條項을 援用하야 驅逐艦超過噸數四萬噸을保有할旨를 通告하엿다 英國政府는 曩者에스카레터條項에依치안코 超過艦艇의 保有를要求하야 日米兩國에 照會를發한것인데 其後 米國政府는 이에同意하엿스나 右條項을 援用할旨를 示唆한 事實에 鑑하야 今回에 正式通告를發한것이다 滿期失效에앞서 關係의措置를取하게되엿다

英에 條約援用으로 海軍條約은休紙化

【華盛頓十五日發同盟】 英國政府는 倫敦條約에스카레터條項을援用하야 驅逐艦超過噸數四萬噸을 保有하기로 決定하엿다 이結果 日米兩國政府도 亦自動的으로 驅逐艦에對하야 比例的으로 增艦의權利를 確保하야 倫敦條約의 驅逐艦制限條約은 이에 一片의 休紙化할에니르럿다 華盛頓外交界에서도 이미英國政府가 驅逐艦에對하야 先轍을밟은以上 日本政府도 亦潛水艦의 超過噸數保有를 企圖하야 亦是에스카레터條約을 援用하리라고 觀測하고잇다 右觀測이 實現되면 米國政府도 潛水艦의 超過噸數二萬三千噸에對하야 에스카레터條項의 利益을均霑하는 結果가되는바 驅逐艦、潛水艦兩艦種에 關한 制限條項解消에 依하야 倫敦海軍條約은 無內容한것이될것으로 憂慮되게되엿다 그리고 倫敦新海軍條約에 日本의 不參加、英蘇兩國海軍會議의停頓으로 前途悲觀됨으로 英國政府의 에스카레터條項援用을 契機로하야 倫敦會議以來前後十餘年 海軍間建艦競爭을 抑制하여오든 華府倫敦兩海軍條約制限體制는

海事審判二審制 九月부터確立

半島海運界多年의要望이되여잇는 海事審判의 二審制確立은 今年度豫算에 計上되여 目下着着準備中이든바 마침내來九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되엿다 右에依하야 從來의朝鮮海員審判所는 高等、地方兩海員審判所로되여 地方審判所에는 審判官四名、理事官二名、書記三名、高等審判所에는 審判官六名、理事官二名、書記三名이 各各任命될터이다

人事·集會

◆前田昇氏(元朝鮮美術品製作所長)昨數人事次來社

八面錄

◇ 京都帝大醫學部에서는 사람의 땀을산다고、但代價는 一日分一圓五十錢乃至二圓。

◇ 資本안드리고 땀만흘리면 장사가된다고、無資本階級이 깃버할일인가。

◇ 가만잇거라、이세상에 땀을흘리지안는사람이 누구냐、땀을뺏앗지안는사람이누구냐。

◇ 땀내(汗臭)야말로 戰爭에흘린 피비린내(血臭)以上으로 至毒하지아니한가。

◇ 人類의 文化도 땀의 結晶이오 世紀末의 罪惡도 땀으로 말미암음이 크다。

◇ 사람은 땀흘리기 爲하야 서는것이오、땀을 먹고 땀을입고、땀에서나서 땀에서죽지안는가。

◇ 明日이 正히 初伏、땀의 哲學을 말하야 땀을 거두어볼까

말더듬이 訥言矯正院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無料送呈

朝報案內

家具 事務所用椅子卓子書棚類 注文次第即時酬應 黃金町三丁目三三七 電本五〇九 關根商會

採用 本園에서中學卒業程度男子事務員若干名採用하오니希望者는履歷書携帶本人來談 年齡二十才以上四十五才까지 京城仁寺町一一〇 天香園

載寧婦人商會 紬絲屑直輸入販賣 振替京城一〇六八六番

恩給 京城府長沙町一六〇 鄭商會

商品仕入旅行團募集

會期 自昭和十一年八月三十一日 至十一年九月十四日 (十五日間)

旅費 壹百貳拾參圓(汽車、汽船、宿泊費其他) (但船舶貳等)

訪問先 東京、大阪、名古屋外 橫濱、京都、神戶、各重要都市訪問

特典 一、日本內地都市見本市에 招待券이 잇서 入場할수잇슴 (其他)

應募資格 全朝鮮及滿洲에서 商店을 經營하는者又는 新히 商業을 開始하려는人士

申込方法 申込金을 振替京城三四一九東洋通信社朝鮮事務所口座로拂込하시고 申込書에 記入하야 申込할것

締切 八月十日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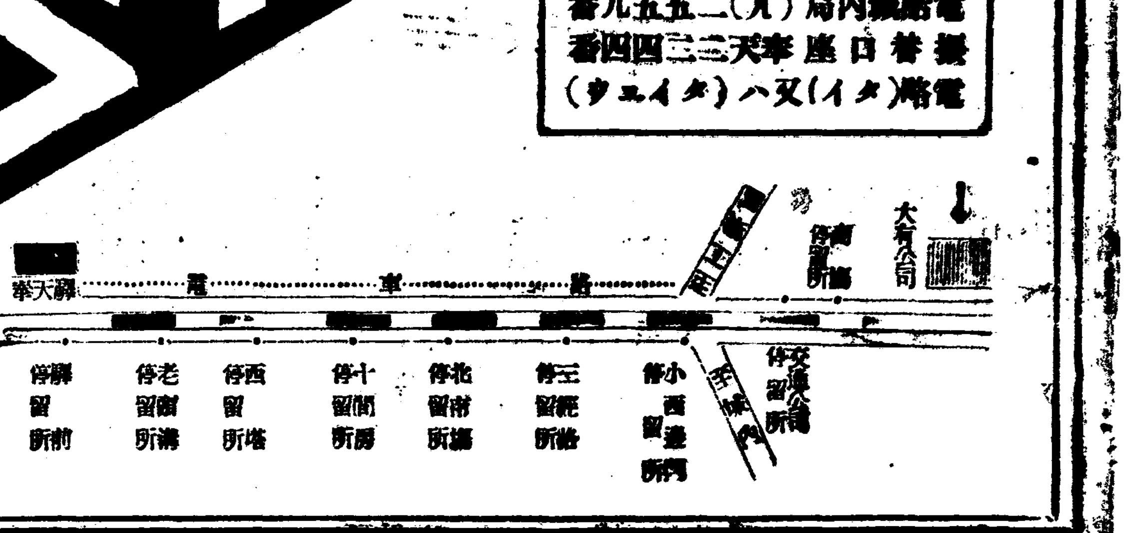
申込場所 京城府 東洋通信社朝鮮事務所

主催 東洋通信社朝鮮事務所

締切日迫頭

角耳式 ゴムベルト
ハイフレックス チユニアー コマンター ヒーロー
在庫豐富 湯澤商店 京城府岡崎町九 電話龍山五九八番

貿易並委託業 大有公司
奉天小西關電車路北一二六
營業種目 海產物並穀物貿易 各種皮物 果物類 海苔 乾材藥材 竹製細工品 木材原木 委託買賣
●仰乞時勢表請求
●時勢問議時品名指定
電話城內局(九)二五五九番
振替口座奉天三二四四番
電略(タイ)ヌハ(タイエツ)



慶南地方에 水亂

田畓浸水、死傷者五名

自動車交通은 거의 杜絶狀態

豪雨는 尙今도 繼續

【釜山支局電話】십사일 오전여덟시부터 서작하야 경남일대를 걸처서 내리는비는 십오일정오까지 경남의 남부방면은 일백이십사미리 북부지방은사십사미리가 내리고 오후에이르러는일할서 비가 끄첫다가 비는다시십오일오후야홉시반부터 내리기시작하야 십육일정오까지 계속하고 잇다 비가시작한 십사일부터십륙일오전 열시까지 우량을보면 남부방면은 이백팔십미리 북부방면은일백육십미리의 우량을보엿다 이로말미암아 각하류는 삼례물로부터 물이몹시불어 증수가되어 동래군사상면(東萊郡沙上面)에는 논밧이침수되고 사하면(沙下面)에는 논이침수되고 부산진부근에는 상하(床下)침수가 유상신고 호출내엿다

그리고양산군대현면(梁山郡大峴面)에서는방수공사를하다가 류덕수(劉德守)씨(三〇)라는 노동자가 이 빠저 죽고 부산부내신창에는 집한채가 문허저 한명이죽고 하동군금남면(河東郡金南面)에서는산이문허저 세명이중상을입엇다 이와동시에 각지의 자동차교통은 거이두절된상태로 교통이두절된곳과 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

梁山—勿禁間 長承浦—馬山間 釜山—龜浦間 海雲臺—佐川間 金海—鳴旨間 東萊—金海間

各地雨量 ▲釜山二八五미리 ▲馬山一五〇미리 ▲東萊一〇四미리 ▲蔚山一四六미리 ▲三浪津一五〇미리 ▲梁山一五八미리 ▲巨濟島一八四미리 ▲固城一六九미리 ▲居昌一一〇미리 ▲咸安一一五미리

金海에도洪水

洛東江氾濫의危險

【金海支局電話】경상남도 김해지방에는 십사일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는 호우가십오일정오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잇는데 그우량이 일백구십칠미리에달하고 내수(內水)로인하야 생림면(生林面)이북면(二北面)상동면(上東面)등세면의 경작지는 전부침수되며 김해、귀포(龜浦)간의도로의일부가문허저서 교통이곤난하게되엿스며 락동강(洛東江)은시각으로 증수하고잇서 미구에범람할 념려가잇는데 일반주민은 대단히 우려하며 경계하는중이라한다

東海中部線豪雨

列車運轉一時中止

築堤約三十米流失

십오일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 울산(蔚山) 병영(兵營)사이 경주(慶州)기점 삼십팔키로부근선로 바른편축이 호우로 약삼십메돌이 流失되야 오후한시오십팔분 울산을 떠나는 제이백팔십이렬차는 운전을못하게되엿는바 오후세시십오분 복구되엿다 그리고 십오일새벽송려선(松麗線)구룡(九龍)벌교(筏橋)사이에서도 호우때문에 뚝이문허저서 복구공사를 진행하든중 물이몹시밀리여 다시 이백오십메돌이 붕괴되엿는데 오전다섯시삼십분겨우개통되엿다

初伏

십칠일은 음력으로 오월 이십구일로 삼복(三伏)중의 첫고비인 초복(初伏)날이다 복중은더위가 오며들중 가장 그위세를 뽐내는 때임으로 더울다하면 어떠한복중이니까하는말이 박권집이 항다반이다 이날에는 예전부터 복다림이라하야 약수터에물먹으러가기와 팟죽(豆粥)이라하야 시내 가에 천렵을하며 일반농가에서는 백반에 종랑(蒸湯)을끄리며 개장국과 백숙을만드러 먹어서 더위를 씻츨겸 더위로 말미암은 몸의 피로를회복식히는일이 성행된다 이로부터 참외와 수박이 한참무르녹어오며 농가에는 김매기가 밧분때로 삼남지방에는곳곳에 농악(農樂)소리가 울리여 농촌의 고요한정서를마음것 엿볼수잇게된다

洛江沿岸要警戒

釜山降雨二八〇미리

三南各地의雨量

仁川觀測所發表

【仁川】작십오일까지 나라고 갓침울이엇든 삼남지방의호우는 의외에 북해도(北海道) 서부에 불연속선(不連續線)이 생기여아직도 삼남지방의저기압은 의연저회(低徊)하고잇슴으로 아직도삼남지방에는 비가 나리고잇스나 금일은때때로 소낙비가십하게쏘주하리라하는데 십오일오전팔시부터금조팔시까지의 우량은 다음과갓다

釜山七〇『미리』▲釜山一五〇『미리』▲大邱二三『미리』▲秋風嶺一四『미리』▲木浦四九미리▲淸州一五『미리』▲全州九『미리』▲中江鎭三『미리』▲新義州一『미리』

이제 이틀간의비를합하면 부산이 이백팔십미리로 울산(蔚山)은 ... 목포(木浦)는 백미리를 돌파하얏슬뿐아니라 또한때때로오는 심한소낙비가 폭주하리라 하며 락동강(洛東江)연안과 목포(木浦)근방은 경계를요한다한다

飛降老婆絶命

십오일·오후여섯시오십분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백십오번지 「세부란스」병원압 전차길에서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칠백삼십번지 리진봉(李振鳳)(二四)이가 운전하든 효자정(孝子町)행 경제백칠호전차에 시내금정(錦町)백륙십사번지의이호 산성(山城)녀사는 ... 도(途)가 뛰어나리다 잘못되여 두개골이 부서저서 곳 「세부란스」병원에입원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동일한시에 죽엇다한다

學生歸省에 臨時列車運轉

하긔휴가에 고향에 도라가는 학생들의 편의를도읍기 위하야 철도국에서는 오는 이십일에다 울과가티 림시렬차를 운전하기로되엿다

一、釜山方面＝京城發二十日午後十時三十分

二、木浦方面＝大田까지二十日京城午後十時五十分發木浦行列車

三、新北靑方面＝京城發二十日午後九時四十五分이列車는 新北靑驛에서 午前十一時十六分發

四、平壤方面＝京城發二十日午後十時十五分 (客車增結大田서 臨時列車)

調書內容의虛僞指摘

起訴事實거듭否認

赤勞事件第二日—言渡는卅日頃

속부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하엿다는 치안유지법위반사건피고 하윤(?)등 ... 고、함영(咸英)등 ... 의 공판은 십오일오전 ... 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산만타는바를 호소하야 ... 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거짓이라 다 ... 하재판장 ... 피고들의 자긔변론에 드러갓는데 피고들은 모다 경찰에서 ... 을 거듭부인하엿다 언도는오는 삼십일경에 ... 제판장의언명이잇슨후 열한시십분폐정하엿다

青燈紅燈繁榮記

다소 경기가회복되여가다는 일면에는 유흥귀분이 경향간에 넘치는것은 어쩔수업는사정이다、 더구나철도연선으로는 소도시가생기며 공사장에는 주막이생기며 대도시에는 료리집、가페음식점등술과매소부의수는 늘어가며 거리마다 청등홍등이 빗나는 그미레는 요염스러운 예기、창기작부들의 얄부진웃음의 퇴폐한세기말적 노래가 흘러나온다 총독부경무과의 조사로보면 해마다 늘어가는 예기 창기 작부 녀급의수는 재작년보다 작년중에또 더늘어일면경기가 다소 회복되엿다는것을 말하는반면에는 세상사람의 생활고분은 그만큼 또 퇴폐하여가고잇다는것을 말하고잇다 즉 작년과재작년과의 그수를비교해보면 아래와갓다

	九年	十年	增
藝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娼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酌婦	[illegible]	[illegible]	一七六
女給	[illegible]	[illegible]	三二四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것으로보면 제일만히 늘은것이 예기구백구십오인에 다음이 창기사백십사인 제일적게늘은것이 작부일백칠십륙인이고 가페의녀급도 삼백이십사인이 늘엇다면 상당한수이다 이를전부합하면 일년중에 이천십륙인이 늘은것이다 당국에서는 될수잇스면 료리집이나 카페등을 더늘리지안흘방침을 가지고잇다고하나 그러나 이만큼늘어가고잇는것을보면 그만큼 세상의수요가 늘어가고잇슴도 짐작할수가 잇는데 이가튼 홍등가의번창을말하는리면에는 하층사회의 생활난은 한층더 심하다는것을 알수가 잇스니 즉 아침저녁의끼니가 힘들어서 마金내는 녀자의 교래내지는 정조를 유일한미끼로 거츨은생활전선에 몸을 바치지안흘수업섯다는 비참한사회의 암흑면의폭로라고 볼것이다

自動車殺人

【平壤支局電話】십륙일 아침 일곱시이십오분에 평양 신창리(平壤新倉里) 전차정류장에서 평양상수공립보통학교(上需公普校) 고등과 일년생 김광호(金光浩)(一五)는 조선운송회사(朝鮮運送會社) 운전수 리봉엽(李鳳燁)이 운전해가든 평남제일천오백오십삼호 화물자동차에 치여 머리가 부서저서 즉사하엿다 피해자 김광호군은 평남 대동군 고평면 망천리(大同郡古平面望川里)에서 그리로 통학하는 생도로 귀여운 외아들인데 이날도 학교에 가는길에 전차정류장에 나리자마자 뒤에서 달려가든 화물차가 별안간에 부다처서 이런 참변을 내게되엿것이라한다 운전수는 평양경찰서에 데려다가 엄중히 문초하는중이다

狂自動車事故

【平壤】십오일 정오중에 평양남문통(平壤南門通)에서 제일택시운전수 홍인왕(洪仁往)(二一)은 자동차를·운전하여가다가 그때 마침 자전거를 타고가든 평양서성리 최상도(崔相道)(三七)를너머트려 중상을입히고 다시그곳을 거러가든 평양기림리(箕林里)한태경(韓泰京)(三七)을 너머트려 중상을입혓다 그리고는 다시보도(步道)를 너머가서 심인(?)자전거점(先日自轉車店)에 돌입하야 그상점기구와자전거도 여러개를파손시켯다 이무궤도의자동차는 가서 동축히 평양경찰서에 물려가서 문초를 밧는중이라

危險한爆破作業

破片이날러隣家損壞

附近住民大不安

십오일 오후령시십분쯤에 시내천연정(天然町)총독부 관사기지 정리공사장에서 폭파하는화약을 써서돌을부쉬고 잇는중폭파된 약이백메돌의 돌조각이 그근처 오경식(吳慶植)외네집에가날러 떠러저서 집웅개와장 여러개가 파손되고 다행히 사람은 상하지안핫다 화약을써서 폭파하는 일은시내원정(元町)일정목 일번지 근등광효(近藤光孝)라는이가 마타서하고잇는데 이날의 그의일군 정수남(鄭守男)이가 화약 십복몸메를써서 돌을 부쉬고잇든중에 그폭파되는 힘이 강하야근처인가에까지 날러가게되엿것이라한다

이런 사고가 생기게되자 그부근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못 위험을늣기고 잇는중인데 인가근처에서 폭발력이강한 화약을 쓰는것은 경찰당국에서도 그사용허가를 좀신중히해주든지 그러치안흐면 좀철저히 취체해주엇스면 조켓다한다

假稱「清津」中國領事

軍事機密을諜報

朝鮮軍當局에서軍事警察力에依하야

關係者全部徹底彈壓

十六日軍司令部發表

【朝鮮軍司令部發表】십륙일 은아직한국청진(淸津)에잇는자칭중국령사(自稱中國領事)손병건(孫秉乾)과 그일파는 군항(軍港)헌병으로 걸거하엿다이에관하야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에서는 십륙일 오전 십시 다음과가티 발표햇다

군에서는 이번군사상 리익을옹호할목적으로 청진의 구로서아령사관청사내에 주거하며 비법적수단으로 군사정보(諜報)를하고잇든 중국인 손병건과그일파에대하야 군사경찰력으로 철저한탄압을 하엿다 본래 청진에 사는로서아제정(帝政)의 붕괴와동시에 자연폐지를 보게되엿든것인데 소화구년이래 소련(蘇聯)당국은 그청사를 중국측에빌려주어 중국소속령사(駐在領事)라고 자칭하는자를 거주식히어 북조선지방에잇서서의 첩보중심이되도록하려든 행동을하엿다 군사상 가장 중요한 지리적가치를 리용하야 권을가지지안흔 사사로운 외국인으로 전혀 한바외가튼 군사첩보를실시하고 잇슴에 이르러서는 아국의독립권(獨立權)을모독함이심함으로 국가자위권(自衛權)의 발동은 물론 조선의 치안에도 큰관계가 잇슴으로 이것을 좌시할수업스므로 한편 소련측이 손병건과 그일파를 리용하야 북조선에서 첩보의 ... 를하고잇섯다 군당국은 ... 얼는바이다 이때문에 군당국이 결국 무슨단호한 처치를 취하게된바이다

"風船"景氣의助勢로

頹廢的氣分漸高

安價로放賣되는貞操의連續線

이곳에도農村活哀史

水上界의 京平對抗戰

八月十六日平壤에서

…新界의後、總動員의盛觀…

半島水上競技界 待望의一戰! 京城과 平壤水上競技對抗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八月十六日午後一時부터 平壤府營풀에서 盛大히열리게되엿다 京平兩都市의名泳手를網羅한 京城水泳同友會와 平壤水曜俱樂部에서는 新界의後援으로 選手强化를 위하야 벌서부터 此一戰을 目標로 猛練習을거듭하고 잇는터이라 實로 一大激戰을 展開할것으로 期待되는바 이 對抗戰은 年年히 開催하기로되엿다 第二回는 明年八月中에 京城에서 本社後援下에 擧行하기로되엿다

高麗卓聯理事會經過

高麗卓球聯盟理事會는 十四日午後八時부터 聯盟事務所에서 開하고 다음의 諸事項을 決定하엿다

一、全鮮女子專門學校卓球聯盟戰(九月中)開催에 關한件

一、全鮮男子卓球聯盟戰 擧行에 關한件

二、朝鮮選手權大會 擧行의 件 其他

明大野球全勝코歸校

朝鮮及滿洲遠征中이든 明大野球部一行二十三名은 京城、仁川、平壤、新義州、安東縣、旅順、奉天、新京、哈爾濱、大連等各地에서 十八戰十八勝의全勝軍을 이끌고 十四日午後一時大連出帆에 歸校하엿다

次回올림픽 東京開催無望

【倫敦十三日發】一九四〇年올림픽東京招致問題에關하야서는 逐次東京에 不利하야가고잇는데 倫敦의 文藝同盟에 參與하야 影響은 日本側의 委員 副島伯이十三日 『하이드파크·호텔』에서 歐洲에와잇는 京京市代表 『후-유』氏와 會見하고 副島伯이 米國 『브란데이지』氏는 歐洲에와잇는 『하이드파크·호텔』로 副島伯을 訪問하고 約一時間동안 今後의 方策에 對하야 情報를 交換한後 歸國한바 兩氏의 會見은 東京招致의 事態는 자못不利하다는데 雙方의 意見은 一致된 態勢인바 萬一 米國의 意見이 大勢에 依하면 다음과가튼 四大難色이 잇다 於是、門司入港의 競技場問題 等으로 歐洲選手와 歐洲競技場의 條件等에 米國의 意見이 一致되 다음과갓다

一、東京의八月은酷暑인것

二、歐洲로부터 遠距離인것

三、選手가 長期間 旅行을 休止할수업는것

四、「오림픽」의 宣傳이 不充分한것

各國陸上豫選

米國 【紐育十二日發同盟】

全米陸上選手權大會第二日의 競技成績은 다음과갓다

▲二百米＝『제시·오엔스』廿一秒(오하이오州立大學) ▲四百米＝『아-치·윌리암』四六秒六(캘리포니아大學) ▲八百米＝『우드럽』一分五二秒二 ▲千五百米＝『그렌·카닝함』三分四九秒九(캐리포니아大學) ▲五千米＝『로-리스』十四分卅秒 ▲百十米障碍＝『포레스트·타운스』一四秒四 ▲四百米障碍＝『그렌·하데인』五一秒二(인데이아나大學) ▲三千米障碍＝『죠-지·지대學』九分八秒二 ▲하로-드·마구

獨逸 (카사스大學)

【伯林十二日發同盟】 全獨選手權大會第一日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百米＝『보르흐마이어』十秒七 ▲一萬米＝『지리』三十分三七秒二 ▲高跳＝『바인쿠에크라』一米二五 ▲走幅跳＝『롱』七米八二 ▲千五百米＝『슈트윌』三分五二秒四 ▲女子走幅跳＝『다-게』五米八六 ▲投槍＝『스톡크』六六米二 ▲投擲＝『바인』五四米三一

芬蘭 【헬싱키十二日發同盟】

芬蘭陸上選手權大會第一日은 十一日當地에서 열렷는바 이날成績은 다음과갓다 ▲投槍＝『고르넨』五二米三五 ▲走高跳＝『코르트카스』二米三 ▲八百米＝『데이레리』一分五四秒五 ▲五千米＝『회델』一四分三〇秒八 ▲二百米＝『스트란드윌』二二秒三 ▲投砲丸＝『베-른트』一六米三二 ▲四百米＝『스트란드윌』...

鐵路總局排球再敗

滿洲國鐵路總局排球團招聘戰第二日은 十四日午後四時半부터 經由『코-트』에서 열렷는바 鐵路總局은 또 再敗하고 말엇다 成績은 다음과갓다

鐵路總局	2	21 — 4 / 16 — 21	0	實業團
鐵路總局	2	21 — 17 / 12 — 21	0	實業團

投槍의알뷔넨不出場

【伯林十三日發同盟】 芬蘭投槍界의 覇者 『알뷔넨』은 지난六月投擲에서 七七米二三의 世界記錄을 作成한 投槍의 雄으로 病院에서 治療中인데 올림픽出場은 可望이 업다고한다

運動界人事

▲安正得氏(延禧專門體育部監督、朝鮮體育會理事)이번 伯林올림픽 觀察次 十七日午後十時五十分伯林發 人事次來社

鍾路署軍官學校事件

關係者十名送局

安、李兩氏는不拘束으로

중국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에 입학하려가겟다는 청년에게 소개장을 써주엇다는 혐의로일여동안이나 종로경찰서고등계에서 문초중이든 안재홍(安在鴻)씨 등의건서류와가티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경성검사국으로 넘겨다 덜명은 불구속으로 김덕원(金德元)정태운(鄭泰運)두명은 구속으로넘겻다

▲送局者氏名

▲拘束＝京城鳳翼町五 金德元 ▲京城笠井町五二 鄭泰運(二一)

▲不拘束＝京城平洞町 安在鴻(四六) ▲京城桂洞町四三 李昇薰(二五) ▲京城鐘路三丁目 金世鎭(三三) ▲慶南晋州邑水晶町 金梓湲(二七) ▲京城雲泥町九〇權都能(二一) ▲京城新堂町四一安明護(二二) ▲京城太平通二丁目一八五 金東哲(二二) ▲京城竹添町三丁目 金龍鶴(二二)

定州五山高普

學級增設申請

朱校長入京活動

정주(定州)오산고등보통학교(五山高普校)에서는 금년봄에도 칠백명의지원자중 백명밧게수용치못하야 평북지방 유일의사립중등교육긔관으로서 매우유감으로여기든바 금반학급을 한반식더하야 명년신학긔부터는 현재십학급을 십오학급으로 늘이기로 방침을결정하고 그교장 주긔용(朱基瑢)씨가 십사일에 총독부 학무당국에 정식으로 인가신청을 하엿다한다。 당국에서도 학교당국의 의사를 존중하야 특별한침절만업스면 인가할듯하다하며 이와가티 학급증설이 실현되는날에는 명년신학긔부터는 입학난을얼마쯤완화하게되리라하며 교장주긔용씨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이번상경한일은 학급증가신청과 박천대령강(博川大寧江)가에잇는 우리학교관계 로전(蘆田)문제에대한진정을 하고자하야왓습니다。 학급증가는 학교예산관계만히중하면될줄로미드며 로전문제는 십이년동안이나 교육긔관에 연고기픈땅을 일개인에게대부할 아모리유도업고 도작년에모씨에게대부한 것도 일개년에 한한것임으로 당국에서도 교육긔관이라는것을생각하야 다시우리학교로대부하여달라고 진정을하엿습니다。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日本海와 北滿洲에잇스며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東海上으로부터 朝鮮에퍼지고잇다 滿洲는 맑으며 朝鮮은흐리고 新義州、釜山은 降雨가잇다 北東岸은 降霧이잇스며 日本內地도흐리고 東北地方及 北海道는 비가오고잇다 朝鮮의 氣壓配置는 아직不安定이므로 明日도 흐릴터이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흐리며 明日도갯다 京畿道全區도흐리다

昨日 最高 二八度八

同 最低 二〇度七

今朝 最低 二一度六

同 正午 二八度八

림질약으로 藥効第一가는 ネオチリン의僞造發見! 効果가如神하기로 大好評을博得하온터이온데 意外에도朝鮮內의某製藥所에서 ネオネオチリン이라는名稱으로僞造하야 販賣한事實이發見되엿스므로 今後買求하실때에는 반드시山本回生堂製의 ネオチリン이라고 指定하십을바라나이다

定價 一圓、二圓、三圓、五圓、十圓

製造元 山本回生堂 京城本町四丁目

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振替京城四五七番

▲各唐파-트各有名藥店에有함

好職業

番械鍼療法 講習會開講

日英米獨佛 五ケ國特許

高地科、通信科、速成科、特典全免無檢定開業 (四錢要) 履書手續必要關係規則開業文獻送呈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奥村療法學院 電話土佐堀三六八四三番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動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常七日十六日부터超特別大封切 유나이팃트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 번역 으도氏 浪漫派의巨匠 죠-지 휫스모리氏大作品!

國際盜賊호텔 로날드·콜맨氏主演 로레타·영 嬢助演

코럼비아特作全發聲西部活劇 西部의荒武者 바크·죤스氏主演 바-바라·우의그스 嬢助演

大都映畫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肉彈鐵火隊 阿部九州男主演 近衛十四郎 月宮乙女助演

寰識はなぜ紅い 미-라의殺人事件 의快男子乞期待

貫鐵町 電光二二九五 優美館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大神聖堂의躍進陣容

經營者
大歡迎

支社設置第一計劃

增募

設置候補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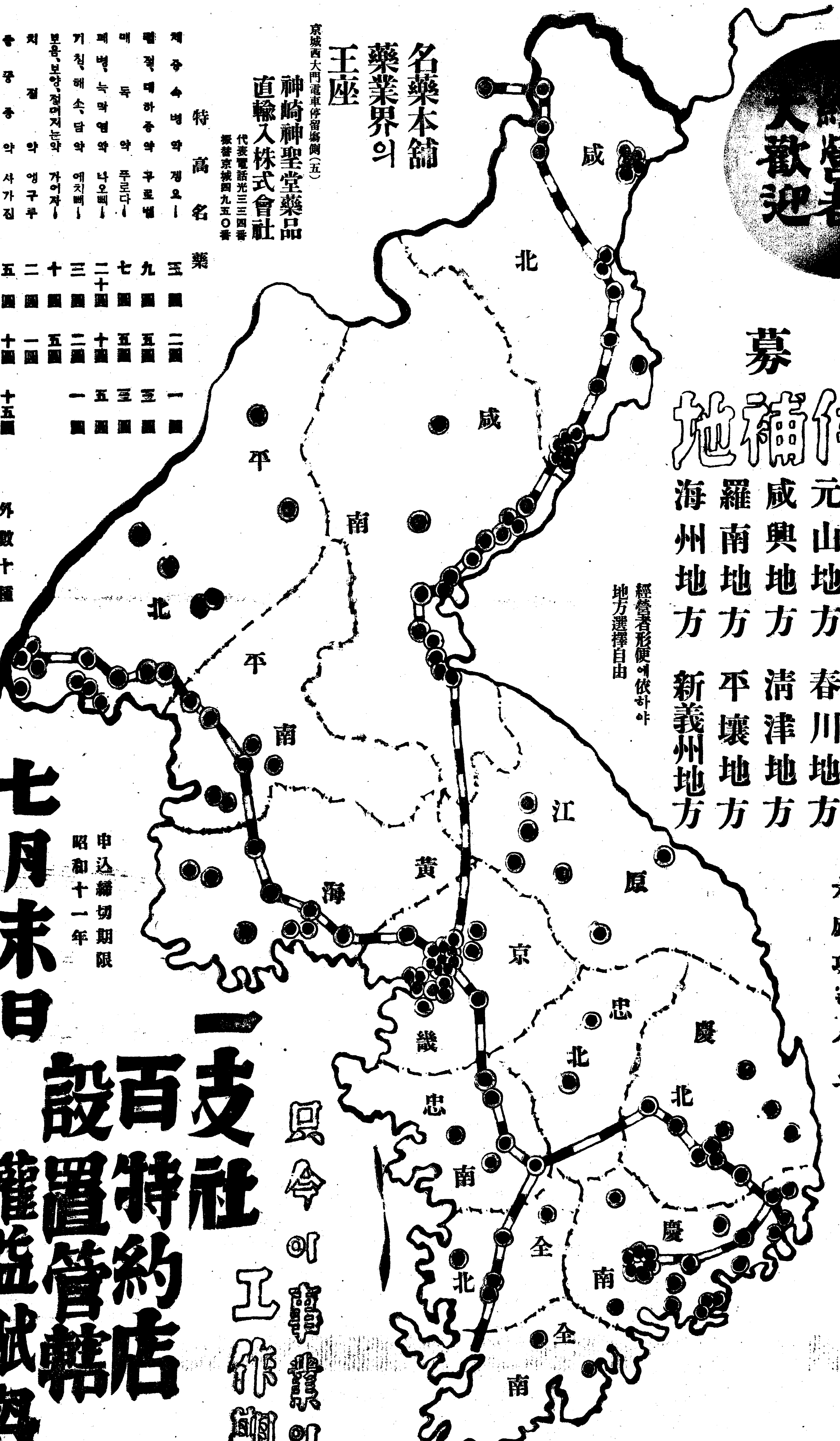
京仁地方
大邱地方
馬山地方
晋州地方
元山地方
咸興地方
羅南地方
海州地方

開城地方
釜山地方
木浦地方
大田地方
春川地方
清津地方
平壤地方
新義州地方

經營者形便에依하야
地方選擇自由

有利事業을
安全事業을
救命事業을
支社長의社會的
地位까지어더
大成功하시오

支社希望이라고
明記하시와申込
하시면規定書呈
急郵送합니다.



名藥本舖
藥業界의
王座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代表電話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特高名藥

제중수병약 정오—	三圓	二圓	一圓
림질대하증약 구로넬	九圓	五圓	三圓
매독약 푸로다—	七圓	五圓	三圓
폐병늑막염약 나오삐—	二十圓	十圓	五圓
기침해소담약 에치삐—	三圓	二圓	一圓
보음、보양、절며지는약 가여자—	十圓	五圓	
치질약 엥구루	二圓	一圓	
풍증약 사가진	五圓	十圓	十五圓
성장병정충약 하도진	五圓	十圓	十四圓

外數十種
及各名藥

七月末日

申込締切期限
昭和十一年

先着必勝

一支社
百特約店
設置管轄
權益賦與

只今이事業의
工作期

家庭

기픈지 여튼지 모를것은 물의마음
함부로 뛰어들지 맙시다
접시물에도 횡액!

여름!불타는여름 이러한때에 만약물이 업고 큰강이업고바다가 업섯든들 사람들은 어러케사라나갈것입니까? 그럼으로 여름한철에 숨이막히고 땀이쏘다지는 더운몸을 서늘한 물속에 뛰여드는것은 한개의 쾌락이아니라고할수업습니다 그럼으로 여름한철 물은 사람의오아시스에 못하지안흔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도 때로는

악마와가틀때

가잇스니 해마다 살려달사면에 낫타나는 물의희생자가 얼마나 만슴니까 그럼으로 만의 이러한 위급한일이 생길때를 예상하고서 멧가지주의하실 말슴을 드리겟는데 무엇보담도 첫째물에빠지지안는것이 제일조습니다 그런데 물에드러갈때 제일 위험한것은 헤엄칠도 잘할줄모르면서 물만보면 우선조와라고풍덩뛰여 드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아주 익숙한곳이 아니면은 먼저 물기피를 잘보아야합니다

맑은물일사록

보기는 얏하도 드러가보면 속이어디든것입니다 그럼으로 반드시 헤엄칠지는 지도자를따려가는것이 조습니다 그러고바다가를려가면 남도헤여간다고 실력이상으로 멀리갈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갓다가 도라올것을 생각해야할것이고 둘째로는 바다스물에 멀리드러가면 한류(寒流)와난류(暖流)의 관계로서 물의온도가 맛치 더운물과 어름물을대여노흔것과 갓틈으로 심장마비가 이러나기 쉬운것입니다 그럼으로 바다에 드러갈때에는 애비운동을 하는것이 조습니다

강물속에서도

공연히 이쪽편에서 저쪽편까지 헤염처가겟다고 실력도업시 덤빌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주의할것은 바다에서나『물』에서는 상식업는사람이 흔히 일부러 물에빠진 신호를하는사람이 잇스나 이런짓은 절대로 피하지안허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물에빠젓슬때는 구조할사람이 만저물에드러가는것은 최후의 경우인것이고 처음에는 줄을던저주던지 바지랑시가튼것을 쥐게

너어주는것이

제일조흘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물속에 드러가서 구하지아니하면 안될때에주의할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란 집프레기 하나만쥐여도 붓잡고 달녀드는것입니다。그럼으로 사람이구하려 드러가면 반드시 목에매여달니려하는대 이런때에는 물에빠진사람에게 붓잡히지말고 멀니떠려젓다 갓가히햇다 하면서 그사람이 어지간이 긔진하엿슬때 목아지를 겨드랑미레끼고 나오는것이 조습니다 흔이 물에빠진사람을 구하려드러갓다가 마저

빠저죽는레가

만흔대 이런것은 구하려 드러간사람이 물에빠진사람에게 붓잡혀서 헤엄을 칠수가 업게된때문입니다 그럼으로 물에빠진사람을 구하는데는 공연히 황급하게만 날뛰지말고 될수잇는대로 침착한태도로서 빠진사람의 긔운을 잘보아서 어지간이 힘을 못쓰게되엿슬때 건저내는것이 제일조습니다 그리고 건저내온뒤에는 먼저 물을토하게 하는일방 인공호흡 도식혀야합니다

—점두의 유혹—

땀은어재 흐를까
—아모리귀찬해도땀은나야해—

[三] 城大皮膚科 鄭槿陽

우리몸의온도가노파질때 땀이나는것은 먼저도말한바와가티 긔온이노플때 또는 신체운동시에 전신에 동시에 이러나는고로 이것은 신경작용에의하야 이러난다는것을 알수잇겟습니다 또 이러한신경을 지배하는중추가 우리뇌수중에잇는것입니다 전신의피부가 더워오면 그피부국소에온감을늣기게되고 점차로 외불전체가 온감을 이르키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온감이 땀이나게되는동기를짓는것입니다。

땀을나게하는 뇌수중에잇는 중추(中樞)는 온감에의해서바로땀이나도록 자극되지는 안치만은 이러한자극이 계속될때이면 발한중추는 점점흥분성이 예하야지고 마츰내 땀이나게되며 흥분이 떠하면 바한사록 발한이심하야지는것입니다 또 그밧게도 온도가노파지면 피부에오는혈관이 확거지며 따라서 이것이 자극이되야 땀이만히 나게되는것입니다。

그밧게 근육운동의 자극거라의 감각 또는 정신상태도 발한중추에 자극을주어 땀이만히나게 되는것입니다。도땀을 정작 만드러내는 한선도 온도 기타의 영향을 밧는것입니다。

그런고로 한선자체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계통이 땀이나는데 관계를 가지고잇는것이나 가장중요한것은 우리뇌수안에잇는 발한중추(發汗中樞)가 흥분되는것이니 이것이 흥분되면 땀이나게 되는것입니다。

먼저도 말슴드렷지만은 발한은 온도의 영향을 밧는것이요 온도가 노프면 발한중추가 흥분되기쉽고따라서땀이잘나게되며 처음때는 이와반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몸이 보통때보다 이상한상태에 처해잇슬때에는 땀에는 다소간달라집니다。

례를들면 우리들이 술을먹고 취한때이면 땀이 잘나옵니다 보통때면 三十一도 내지 三十二도때에 땀이 나기시작하는 사람이 술이취하면 二十七도때에 땀이난다고 합니다。또 열이나는병에 걸렷을때면 그 초기에는 열이나서 체온이올라가도 땀이나지안치만은 열이내리기시작하면 원기 땀이나게됩니다。장질부사가튼것은 이러한예들입니다 또 급성병에걸녓때는 병이 나아갈때 땀이나기쉽고 또 근육운동을할때에 피로하얏슬때 땀이나기쉽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에따라 땀이 나는정도가 다른것도 사실입니다 어떤사람은 긔온이 노파저도 그리 땀이나지안는사람이잇습니다 이러한사람은 조혼것갓지만은 실상은 땀에의한 체온의조절이 불충분함으로 열대지방가튼데는 살수가업겟습니다 또 열무과민해서 여름철이나 정신이 흥분될때 매우땀을 만히흘리는사람도잇습니다。땀은 그중에서 열이 섞겨나오는까닭으로 심한운동에 의하야 땀만히흘리면우리몸의신열이 적어집니다그런고로 이런때에는 맥을만히어도감풍이어서지안코를대신소금물을먹으면 잘풍도회해지고 혼풍도 계속할수잇습니다。

×

지금까지한말을 간단히적으면 이러합니다 땀은 온열이나 정신작용에의해서 뇌수중에잇는 중추가 흥분되며 이중추의명령으로 말초신경이흥분하며 드듸여 한선을 자고잇는신경이 작용하야 혈액이나 체액으로부터 재료를 어더 땀을만들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추가 흥분하는정도는 가정에따라 기온에따라 각사람에따라 다르고 한사람에잇서서도 신체의상태에의해서도 다른것입니다。

그리고 땀이남으로써 체열을 조절하며 또 손과 발은 이것으로말미암아 동작을 민첩하게 할수잇는것입니다。

그리고보니 여름철에 귀치안흔땀도 만일 조곰도나지아니하면 조흘것갓습지만은 정작안난다고 하면 우리몸에큰지장이잇을것입니다 땀이난다는것은 매우 고마운 생리현상의하나이겟습니다。

녀무 과히 땀이난다는것도병이지만은 땀이적게나거나 안난다는것도 이에지지안는 큰병이겟습니다。

더구나 더운여름이되엿스니만치땀을흘녀서 체열을 조절해야하겟습니다。

돈도업는사람들이 덥다고 피서지를 차저갈필요는 조곰도 업습니다。보통때와가려 힘써일하고 그대신 만흔땀을흘림시다 구슬가튼땀을 흘리며일하는 사람을들때에 우리들은 자연히 머리가 숙으러집니다 이여름에는 앗김업시 땀을 흘리며 힘써일하야봅시다。

―끗―

문명한두더쥐 땅속에서결혼식

최근 미국에는 라체운동이 대단히 성행하고잇습니다 벌거벗고 체조를 한다는라체운동이아니고『귀찬스럽게옷 입지말고 벌거벗고 살자!』하는운동입니다 그래서 몸에실오래기하나 안걸친 벌거숭의남녀의 결혼식을 흔히 볼수잇는것은 벌서옛날일처럼 그다지 신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라체주의자들은원시적인땅속 결혼식이라고 하야『오레곤』주의기프숲속일천뉴백척이나되는 기픈땅속에서목사님한분을 모서드려 여러상의벌거숭이 신랑신부가 얌몸에 주생의가족만 두르고 엄숙한결혼식을 거행햇습니다。

폐병이아닐까

問 금년이십팔세 남자인데입변전부터 폐결핵으로 료양중임전에 모병원에수진하니 병세는 정지되얏스나 폐문림파선종양심장이 약간버며 경한신경쇠약고혈압(一六〇―九〇)이 잇다고하야 이때복약중이나 별반효과도 업고 산보후나 식사후에는 심장부에 압통이잇고 가삼이답답하고 또한두통、두중、이명(耳鳴症)이나며 특히 상긔가잘됩니다 적당한치방을 하교하여주소서 적혈구침강속도(赤血球沈降速度)는 한시간에四이며유장도 조치못하고 손톱과발톱밋도항상 붓습니다 (大邱苦痛人)

答 여러가지 증세가신경쇠약중인것갓습니다 혈압이놉다할도 일시적고혈압인것갓습니다 적혈구의 증세로는결핵이안닌것가티 당신은생각될거시나 그러나 적혈구의성적은 결핵이 진행성이아닌것을 의미하난것에 지나지안습니다 여러가지비혈증세도 손과 발톱의 증세로보면 빈혈가지도 안습니다 그런고로 우에말한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신경쇠약증갓습니다 좌긔처방을 상주간연복하시고 긔거를 규칙적으로지나보게하십시요

一、臭剝	二、〇
臭那	一、〇〇
纈草丁幾	二、〇〇
苦味丁幾	一、〇〇
水	一〇〇、〇

右一日量三回食間服用

(聖母病院長 朴秉來)

다리저린데

問 생은 삼십이세의 남자로 전부터 직고관(直股筋)이 별노이 감각이업드니 요사이에는제리며 더구나 사리고안는지 또 두려누으면 제립니다 한쪽다리만 그러하오니 집에서 치료법이업슬가요 (경성 일독자)

答 직고관의감각이업서젓다는 말삼을 리해하기어렵습니다 증세로보아서 신경통에 각가운병인듯하오니 전문의에게 뵈이고 적당한 치료를바드시오 자택치료는 곤난합니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金晟鎭)

童話 이상한상자

宋昌一

동리에 마음조치못한 김첨지라는 영감이살엇습니다

이영감이 순남이네가 젊보다 걱정업시사는것을보고 의심이나서 하루는차저와서

『여보게 순남이 요새는 어데서돈이생겨서 그럭케 잘지나는가?』하고물엇습니다 거짓말을모르는 순남이는

『네! 저번에 나무하러갓다오다가 강에 빠진영감을구하여 주엇드니 고맙다고주고간 이상자속에서 돈이나와서 걱정업시 지납니다』하고 사실대로말하엿습니다

『허! 그것참이상한상자인데! 어디그상자 좀보여주게』 영감은 이상한상자를 잡어단니드니 속에무어이잇나가만가만 흔들어보앗습니다

흔들때마다 미테뚤닌구멍으로 굴돈이작구작구떨어젓습니다 영감은 땅바닥에 떨어지는돈을 돈에그만 정신을 일흘번하엿습니다

『아이보게 순남이 이상자를내게다팔수업겟나? 갑슨달나는대로줄터이니까옹?』

『안이에요 도저히 팔수는업서요 그영감님이 구해주신표로 주신것을 팔면되겟습니까!』

영감은 여러말로 팔기를권하여 보앗스나 도모지 듯지를안햇습니다

한참동안 말업시 무슨궁리를 하든영감은

『그럼순남이 내말듯게 그상자 흔들수업다지 그러타면 하로만빌녀주게 빌닐수도업겟나? 사실순남이네가 이만큼 살아가는것도 내덕인줄알어야어베』하고 빌녀주기를청하엿습니다

『어지하나!』순남이는 큰걱정이생겻습니다 빌니자니 아조가저가버릴것하겟고안빌니자니부모들이 김첨지네밧도부처먹기때문에 사실 은혜라고아니할수업스니만큼 거절할수도업섯습니다

『그러면 꼭 하루만 빌녀드리지요』

『응! 그래그래 하루만 빌려치겐』

『너무 흔들어서 상자를 상치말게해주어요』

『원천만에 내가 그런경우모르겟나? 념려말게 념려말어』

상자를들고 도라온 김첨지는 드러오자마자 자긔의 안해와 자식들을 다불러다노코 이상한상자에대한 설명을한다음에 흔들기를시작햇습니다

작구작구 떨어지는 금돈은 방으로하나 싸이엿습니다 너무자미가난 김첨지는 하루만 빌닌것을 후회하면서 작구 흔들어대엿습니다

그러나 구멍이하나가되는때문에 한번에 한닙밧게는 나오지안앗습니다 도모지 시원치가안허 구멍을 두어개 더뚤려 노앗습니다

구멍두개를 더뚤러노코 김첨지는 팔이아프든지 아들더러 좀 흔들어보라고햇습니다 아들은 딸을 거머쥐고 잇는힘을 다하야 흔들엇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엿습니다 그래케도 잘나오든 금돈이 한푼도 나오지를 안햇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냐 흔들을 울 틀니서 그런거지 그럴리이 잇겟나?』

이번에는 영감이 또 흔들어 보앗스나 역시 한푼도 나오지는안코 잔득 싸웟든 금돈이한닙식 줄어들기를 시작하드니 삼시간에 다업서저 버리고 잇든 재산까지 전부 업서저 버렷습니다

김첨지영감이 단단히 붓잡엇든 이상한상자를 내여던젓슬때에는 벌서 원천만이 거지의떼로 변하여 버렷습니다

우리차지

벼짱이『개똥벌레야가
씨 파ー란불을 켜들
고 어데가십니까목이
마르시거든이가랑니페
오시어서서늘한 이슬
방울이나잡수시면서벼
짯는구경이나하고 가
십시요』

(글과그림) 김두관

(連載小說) 보리방아 【十二】

蔡萬植 作
崔賢郁 畵

그러나 태호에게도 그만한방패패기에 대한 방게의 준비는 되어잇섯다

×

이면에는 작변부에 예정한 호수대로 세호의 자작농창정(自作農創定)이 되기는 되엇다。

그러나 그 세호가운데 단지 한호만이 그래도 법적으로든지 실질적으로든지 자작농창정에 참가될 자격을 가진사람이엇지 남어지 두사람은 협잡이 부튼 유령적존재(幽影的存在)엿섯다。

자작농창정의 대상은 근본적으로는 세농민이라고한다。

그들 세농민에게 륙백륙십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어서 삼단보 흙은 사단보의 논을 사게한다。그러면 그사람은 그논을 자긔것삼어 지어가면서 그저 빗싼 도조정도로 매년 그돈을갑허가다가 이십년만에 다 끄틀내면 그때에비로소 그논이 자긔소유가 되게되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잇서서는 세농민은 도저히 거기에 참가를 할수가 업는형편이다。

첫재 그들은 무지해서 그것을 리용할줄을 몰은다 자작농창정이 무어인것조차 알지못하고잇는게 그들이다。

또 가령그들에게 삼단보 흙은 사단보의 자작농창정을 해준다해도 농사미천이라고는 세코잡병이와 호미한개밧게 업는 그들인지라 농자(農資)때 문에 그것을 지어나갈 힘이자라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륙백륙십원만 가지고는 규정된 삼단보나 사단보의 논을사기가 어렵고 대개는 자기의 돈을 더 보태야하는데 세농민은 그러할 힘도업거니와 또 그것을 빗으로라도 둘러대일 신용과 주변을 가지지못햇다 그러니까 자작농창정의 사실상의 대상은 세농민이아니라 그래도 너대말직이 농사를 이리저리 둘러대어 지어나갈 힘이잇고 또 모자라는돈은 저리자금이라도 어더보태신용과수완이 잇는 말하자면 중농부류랄지 또는 제법 식자나 들고내노라고하는 그러한 농촌의 안테리층이라고 할수가잇다

아까 말한 이면에서 창정된 자작농의 세호가운데 하나인 김이라는사람도 그러한 부류의사람이다

이것은 가령 사실에 잇서서 세농민이 무능력하기때문에 일을 담당한 면이나 금융조합도 어찌할수업시 그럿케 할수밧게 업다고하지만 남어지 두호는 완전히야바우가 부틴것이다

즉 ××조합의 ××한사람과 ××××의 ××한사람이 계각꿈 만만한 세농민 한사람씩을 어떠삶머 가지고 그들을 피창정인으로 떡 내세웟다

떡욱 일이 잘 되느라고 마침 금융조합에서 저당류되는 논이 잇섯든지라 그것을 헐갑스로 략가식허서 대번 아무아무두 세농민의 명의로 자작농창정을 해노핫다

물론그 두 세농민은 형영문인지도 모르고 도장만 빌려주엇고 아모말도 말라니까 식히는대로 아모말도 아니햇다

그랫스니까 법적으로는 아모것도차착어서 수속이 되것이다

그러나 금변복에 딱가시 빗작 울으매 기회가 조타고 두 ××씨는 그 논들을 팔어 륙백륙십원을 일시에 갑허바리고 이백원식의 리익을 갈쭉가리남겨먹엇다

그것이 문서상으로는 자작농장정인 아모아모 두사람이 한일로 되엇스니까 어느모롱이녀할잡을 거리가업시되엇다

허장성세의 빈약한 내용의것에 다라운 뿌로커ー의 좀까지 생긴것이라는것이 즉 그내용을 말하는것이다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사람이면모르거니와 알고잇는사람에게는 면장은 여간만 위협을 느끼지아니햇든것이다。

가령 면장 자신이 그것을 묵허한것이 아니라고 하더래도책임문제가 잇는데 하물며 알고도 술그머니 눈을 감어준데야 더구나 할말이업는것이다

태호는 이러한 속을알고 그래서 그것을 약점잡어 여지를 쓰려고하는판인데 아직 그눈치를 못채인 면장은 런해 위엄을 가추어가지고 설명을 하고잇는것이엿다

『안될것이 자네가 진흥회회원은 회원이지만 그나락은 진흥부락사람한테만 내주는것이라 말이네……것두 내맘대루 허는것이면 어떠케 둘러대기라두 해보것네만 면에서는군농회(郡農會)의 십분를만 허구잇스니까 도무지 무슨 변통이 되야야지!』

『그럼 진흥부락사람을 데리구 와서 수속은 그사람아프루허구 내가 갓다먹구 내가 가푸면 되것구만?』

태호는 위선 이러케 눈치를 떠보앗스나 면장은 아직도으젓하게 고개를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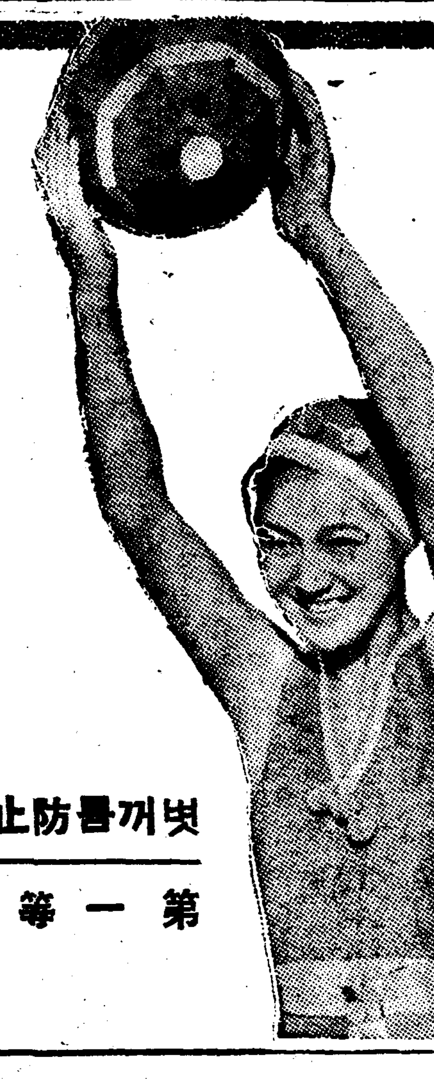
『거 그래서야 쓰나!그걸 농회서 알면 내가 책임을저야 허게? 안되지 안되어!』

태호는 이때라고 생각하고고까운드끼 슬적 외면을 하면서

『체! 원 그보담 더헌 자작농창정두 모다들 남의일홈으로 히엿다가 지가가 울으니게팔어서 돈을 낸겨먹더만! 그까짓 나락두섬이야 어떠랴구?』

하고 질짓 노염을보인다

日ヤケ知ずのお肌の避暑法



여름살결의苦痛은무어니무어니해도볏꺼룸입니다。아모리어엽분小麥色의大流行이라할지라도 그는程度에넘치지못합니다!

여기서推薦하려하는것은볏꺼룸모르는살결의避暑法!

于先볏꺼룸을防止하며整肌料로써効果第一等가는레ー도구레ー무를朝夕으로愛用할일!

레ー도구레ー무의獨特한整肌成分은皮膚의深部에浸透되야細胞의新陳代謝를旺盛케하며直射、反射되는强한紫外線의살결에吸收를適當하게調節하야、벼꺼룸、夕陽꺼룸을防止하며、色黑을解消합니다。또한皮脂分泌腺의機能을整齊하야여드룸、부름의發生을防止또한잔주룸、여스러짐等을解消하야、언제나清白한青春美의젊은살결의躍動을갓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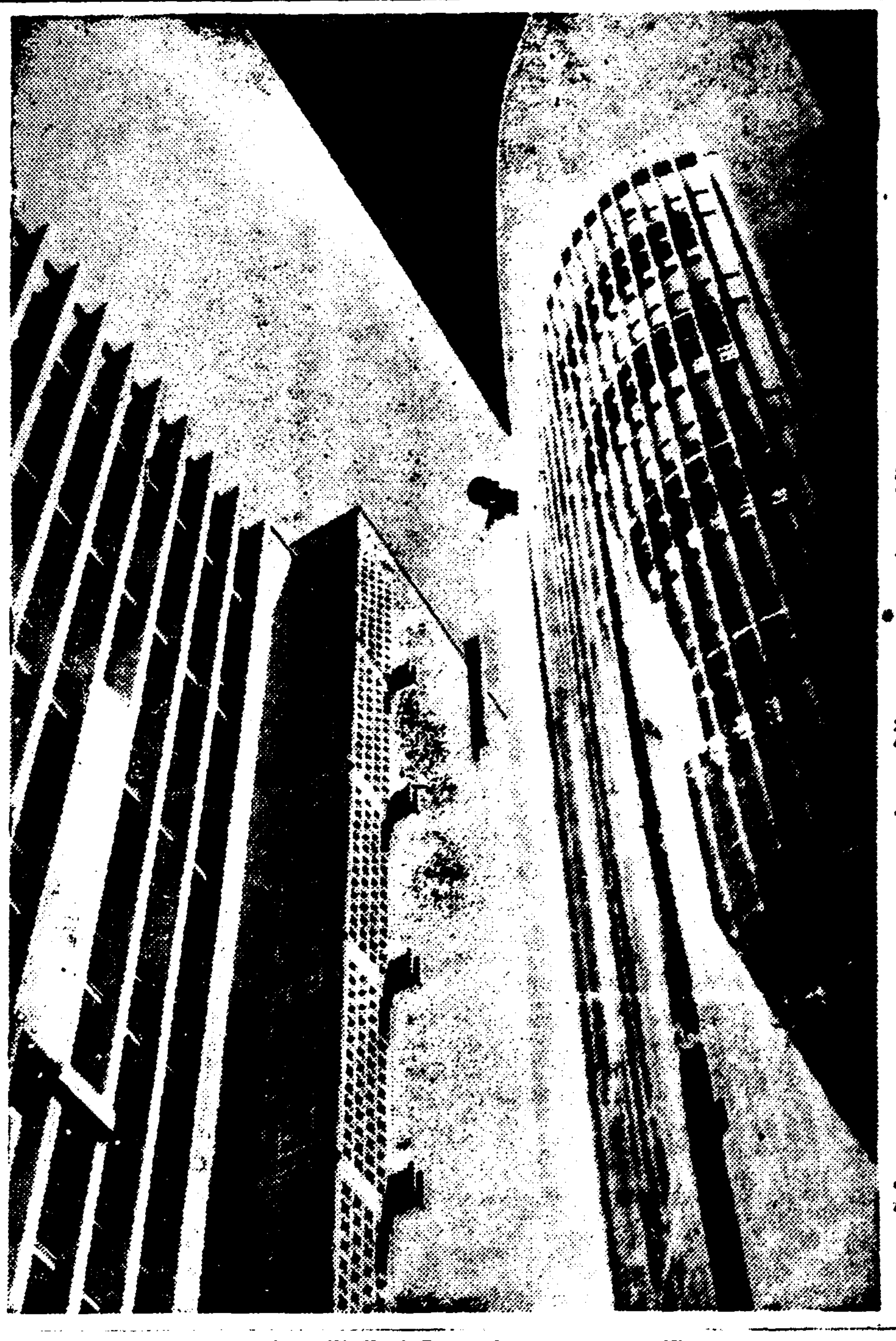
化粧下에는絶對로必要한品

レートクレーム

벗꺼룸防止에 第一等!

レート化粧料本舗・東京・平尾賛平商店

★都市의稜角★



學藝

現段階의文學과 우리의『포ㅡ즈』에對한省察 ⑤

李源朝

그러타『眞實한姿態』이것은文學하는 우리로서 가저야할『포ㅡ즈』인同時에 또한 眞理를探求하는사람마다 가질수잇는『포ㅡ즈』인것이니。

…◇眞◇… 實이라는것은 眞理의 性格인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眞理라는것이 항상 自己를 表示할때는 먼저한개의 理論的體系를 가지고써 하는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客觀性으로서의 眞理라고 할수는업는것이니 그것은 비록 客觀的眞實性은 가젓스래도主體的眞實性을 가지지못한때문인것이다。그러나 한개의 客觀的眞實性을 가진 眞理를 主體的으로 把握하자면 또한 그主體스사로가 眞實하지안흐면 안되는것이니 여긔에잇서서 眞理와 眞實이라는것은 그存在에잇서서나 認識에잇서서나 永遠히 떠날수업는 一體兩面이라는것을짐작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眞實이라는말이 주는 誘惑은 항상

…◇苦◇… 難이라는것을 聯想케하는것이다。다시 말하면 眞實하다는것은 決코 平坦한길에서 뚜려시낫타나는것이아니고 도리혀險難한길에서 그性格을 더잘나타내이는것이다。그럼으로 사람마다 眞理를 探求한다고 豪言壯語하기는 쉬워도 한사람이라도 眞實하기는 어려운것이니。眞實이라는것은 내가아닌 다른것에 對한 義理업는奉仕(Service)인 때문이다。그럼으로 여긔에는 한개의 義務라는觀念이 隨伴되는것이니 그義務를위해서는 安逸한 小主觀이라든지 또는 外部의 誘惑이라든지하는것들에 對해서 항상 屈折되지안는態度를 이르는것이며 또한 여긔에 苦難이잇는것이다。

勿論 오늘날까지 이르른 프로文學의 一劃期를 完全無缺한

…◇金◇… 科玉條는아니라고하자 그러나 어제까지라도 進步的作家니 評論家니하면서 時代의 寵兒로 自處하든 그네들이 오늘날에와서 그때의일을 汚辱의 過去와가티 씨서버리며 暗黑의 魔窟에서 解放된드시 揚揚自得하니 이네들에게 果然 眞理를 探求하려는 意欲이잇는가。文學을사랑하는情熱이잇는가? 勿論 우리는 이事實만으로서는 그네들을 非難하거나 斷罪할理由가되지못한다고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여긔서 지나처지못할 事實은 이러틋 眞實하지못한 그네들이 입으로만 眞實이니 苦悶이니하는것이니 어제의 프로文學을 오늘에와서 背反하드시 오늘의 眞實과 苦悶을 來日에가서

…◇謀◇… 反할것도 짐작할수 잇는것이라 우리는 다만 文學하는사람으로서의 참다운 眞實을 이네들의 不正한 叫喚에서 防衛하자는것뿐이다。

더구나 오늘날에와서 이러한 眞實의 問題를 에워싼 叫喚과 反駁과 辨護가 모다 不純한한개의 人間的 私感에서 생긴惡臭를 풍기고 잇스니 果然眞實한者는 누구이며 眞實하지안흔者는 누구이냐?

이러한 混亂과 不純한 空氣속에서서로 反目하고 族視하는동안에실상 重要하기론 우리가 文學을 喪失하엿다는것을 깨다른 사람은 업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 再出發하지아니하면 안되게된것갓다。우리의 새로운 文學을 獲得하기 爲해서。그리고 이러한 再出發을하는데잇서서는 우선 文學하는 우리로서 먼저 한개의『포ㅡ즈』를 가지지아니하면 안될것갓기도하다。

이 조그마한 提議가 행혀 나와 마음을가티 어느사람들에게 容納되는바잇다면 저욱이 多幸한 일이겟다 ─了─

存在의辯護

─人間과그自己限定에關하야─ ❶

金基錫

『人間學이 歷史觀을規定한다』이때 人間이란무어인가。人間의 存在란무어인가。우리들은 나란것이잇슴을안다。그리고 나와마조서는 그대란것이 잇슴을안다 이나와그대는 여던 同一한秩序에싸히면서 자기를 다른秩序의 存在로부터구별한다。이나와그대를그속에가지는 한개의秩序란엇던것일가。그리고 그것은 엇더케하야서 그자신 存在의世界를 構成하면서 그속에서 자기를限定하는것일가。

우리들은 나란것이잇다고말한다。나란것이 아직 무어인지를 모른다고해도 이나란것이잇다는 한개의嚴肅한事實을 의심할수는 업는것이다。『떼까르트』의『나는 생각한다 그럼으로나는잇다』라는 命題를 우리들은『나는잇다 그럼으로나는생각한다』『나는잇다 그럼으로 나는움직인다』라는 새로운命題로밧고지안허서는 안된다。『나는잇다』라는 이조그만 命題로부터 나란것을解明할길이 업슬가。

내가잇는한에서 나는먼저『잇는것』이 아니면 안된다。그대가 잇는한에서 그대는먼저『잇는것』이아니면안된다。人間은『잇는것』이다。─이見解를 우리는人間의第一反省이라고 부르려고한다。이『잇는것』이란무어일까。우리들은『잇는것』의 基本性格으로서『限定』이란것을 생각한다。잇는것은 모도 자기를限定하지안허서는안된다。자기를限定하지안코 잇는것이잇는가。물이잇고 흙이잇기위하야는 물이나 흙은 부단히 자기를限定하지안허서는 안된다。우리들은 오늘의自然科學에서 물이나 흙을 어더케說明하는지를 아직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生活및 體驗은 물이나 흙을 어느程度까지 서로다른것으로 가르친다。물을 마서야할때 흙을마시는이가잇고 물을가저와야할때 흙을가저오는이가잇는가。여기에잇서서다。물이나 흙이 서로자기를 限定한다는것은。

오늘의 觀念論이나 唯物論에서와마찬가지로 모도를하나로 일우어보려고하랴。그러케보면엇더케하야서 이『하나』가여러것으로나타나고 잇는것인가。이나타난『여러것』의 背後에 엇더한『하나』가 숨엇다고 옥일수는 잇서도 이 나타난『여러것』을 그대로『하나』라고 옥일수는 업는것이다。하나가 따로잇서 그것들이이른바 自然을 이루엇다 보지안허서는 안된다。오늘의 唯物論은 人間이나 自然을 그대로 物質이라고 부르는가。人間은 생각하는物質이라고 부르고 自然은 움직이는 物質이라고 부르는가。그러타고 해도 가튼物質속에서도 어더하나가잇고 다르게하나가 따로잇서 그것들이 이른바世界를構成한다고 보지안허서는안된다。

限定性。이것은 一個의存在者가지니는 한개의原理的인 性格이다。어더것이 잇기위하야는그것이다른것에 대하야 자기를구별하지안허서는안된다。이자기를 구별하야 내이는性格이 곳그것의 限定性에지나지안는다。

우리들의주위에 물만이잇고물로부터 자기를구별하는것이 업다고하라。그때 우리가 부르는 흙이니 돌이니하는것들이 그리고 그밧게 허다한것들이 모도 물이되지안허서는 안된다。그리고 이글을쓰고잇는 나나 이글을 읽고잇을이들이 모다 물이되지안허서는 안된다。한어시 크고아득한 물의世界를 想像하라。그때 거기로부터 자기를구별하는 것을 가지지못한 이물마저 기실 자기를 물이라고 主張할것이어서 될것이다。무어이 자기를 限定하는일이업는곳 그곳은존재의世界는아니다。외로운氣의世界 자기에게로 도라올 存在를 기다릴것조차업는 외로운氣의世界가버린곳일따름이다。

『잇는것』이 모도 이 限定性에잇서서 주어진다는것은 그것이 久遠한 存在가 되는것을 意味하지는 안는다。

한여름밤의꿈 ⑤

쫏차오는猛虎 달녀드는鰐魚

白鐵

그벌판의 배경에는 크고 아름답은 숲(樹林)이신록에 욱어저 잇는데 거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와 녹향나무가 들푸히서잇고 그숲을 흘어오는 고요한 맑은 바람이 훈훈한 향나무냄새와 송진냄새를 풍겨 왓스며 그숲압 즉 내가 서잇는곳은일면 아득한 벌판인데 그것은보통의 그벌판이라는것보다는 프른풀밧우에 가지각색의 화초가 가득히 차잇는 벌고 아름답은 꼿동산이엇다 그것은 마치 찬란한 한폭이지의 그림첩을 펴처노흔것과가티 프른색지우에붉은 꼿흰꼿노른꼿 자주초록 실로 자홍의여러가지 반점(斑點)이아롬답게수놋이 날녀잇섯다 그것은 프른풀밧우에 아름답은 꼿으로 아로사기듯 들이엇다 숲에서는 일홈도 모르는 새들이 쭉징은듯이 노래를하고 꼿동산에는 범나비와 버리가 경쾌하게 날너다녓다!

그우에 하늘은 무한히 고요하며 맑엇고 태양은 쪽양도아니고 냉혹하지도아니한 실로 자혜스럼은 볏을 고요히 내려던지고 잇섯다!

하늘에는 광영(光榮) 지상(地上)에는 평화와 행복! 나는 이지상의 자연그리고 그가운데서사는 인생이 이와가티 가치잇고 아름답고 평화스럽은것을 지금까지 알지못하얏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된것은 그평화스럽고 아름답은 자연은 영원히 아름답을것가트며 거기서 사는나의 인생은 영원히 평화스럽을 청춘일것만가티다! 사실 그행복된향락과 숩결은 회상가운데 황홀한정신으로 도취되여 잇는동안 나는 젊기에 겨울이 잇슴을이젓스며 인생에 번노와 죽엄이 잇는줄을 완전히 물으고잇섯다! 모든것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만 생각하는것이엇다!

문득 뒷숩에서 들녀오든 그 아름답은 새소리가 끈첫다! 종올우며 날너오고가든 그나비들이 그림자를 감추엇다! 지금까지 연하게 고요히 불어오든그 바람조차가 생녀(生命)하지안는가?

놀내여 내가 주위를 돌아보앗슬때에 모든것은 이미 느즌 이후이엇다! 지금까지 그러케도 아름답고 평화스럽든 풍경은 일순간에 모도가 돌변해버린것이아니랴! 신록이 욱어지고 향그럽든 그숩은 니괴 떠낫든 벌판 꼿동산의 풍경이어데로 가것이업고 다만 일면이 불타진지 오랜것가티 앙상한 죽은가지들이 매굴의 손길과가티 배처잇스며 무엇보다도 그아름답든 벌판 꼿동산은 다만 엇의에타진잡초과가티 재빗으로되여버린 초토(焦土)이엇다!

이러한 커다란 기적과 돌변에 사람은 공포와 경악에 압도된것이다! 나는 자실한듯이그 번해버린 주위의광경을 먼하이 바라보고잇섯다! 일허진 평화와 행복! 여기에는 다만 부참것업는 나의생명이라는것이 남어잇슬뿐이엇다! 그때다! 나는 떠욱 큰공포에 경악하면서 귀를 기우렷다 그것은 그뒤 죽은나무숩사이에서 들녀오는 맹수의 발자욱소리엇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안코(아니 너무 무서웟든까닭에 돌아볼수가업섯다) 그것이큰 호랑(虎)이길줄은 잘알수잇섯다 그범은 나가를것은 한번에 막 세네개를 삼켜먹을 큰범이라고 생각이되엿다! 이번은 최후로 내생명을 빼아스려오는것이다!

물론 나는 도망하기시작햇다! 하나 죽기럼 발자욱이 잘 떠러지지안햇다! 한번뛰다고뒤면 도로 그자리에 되떠러지는것가트며 마음만 초조하고 조급할뿐이요 나가지지안는것이어가랏다! 그러면서도 퍽오랫동안 조켜와다고 생각이되엿다 그재빗 벌판을 것너고 숨업는산을 넘고 또 가름벌판을 넘어 어떤 큰 강가에 까지 도망을 처왓다! 그것은 퍽멀은 강이엇다! 그순간 나는 이제 살어낫다! 고 생각을 하는것이엇다! 내생각에 범은 헤엄을 못친다!고 생각이되엿다! 하나 나는 수영을 하지안는가!

그강뚝에서 바야호로 강에 뛰여들녀고 할때다! 나는 막 수면을바라보고 최후의 절망과 공포에 뒤로 주저안고말엇다 그강에는 큰배암들과 악어들이서로 엉키여서 주리안햇든니고뒤여들녀는나를 기다리고잇지안흔가?

뒤에는 범 아페는 악어와배암들! 나는 그이상 터할바를몰르고 잇는때 바로 나의 발굼치를 물러고 하는듯이 조차온범의 발자욱이 각가워오다고 생각된데 나는이악!소리를지르고 그 강어덕을굴너 나렷다 그리고 물너 나떠러지는 순간에나는 커다란 물의동요와함께 눈을떳다! 한여름의 무서운 일몽이엇다!

一隨筆一 여름風景 (1)

蔡萬植

盛夏에서 한여름을 지난 일이다

◇낚시질

李生 처음으로 낚시질을가라고 약속해노코 이튿날아츰 부즈런히 이러나랴고 이러난것이 해가 둥둥 솟은 아홉時다

그때 부랴부랴 소쇄와 朝飯을 마치고이웃 李君집으로 달려갓다 太公望이란건 悠悠하고 탈자조흔것이라더니 내게는 그러치가 못한것 나는 焦燥했다 李君은 眞擊(까지는 다못되고 十분가량)의 준비를 다 해노코 나를 기다린다

낚시대 낚시줄 낚시 낚시밥 까지 자리 다래끼 밀짚 洋산 그리고 점심……以上 우리두사람상

우리는 전차도타며 기운차게 出發에 올랐다

우리의 武裝은? 하면 고외적삼에 우에는 밀집벙거지요 아래는 풀다님 그래도 풀숲의 뱀을 防止하기 위해서 발에는 구두를 신기 신엇다

本是 우리고장에서는 젊은사람들이 낚시질을 다니면 中老들이 흠외자식이라고 욕을햇것서 그러지 太公望漁夫가 좋아자 除되어 요지음은 아무고 하고시푸면 맘대로 다니는판이다

그러나 그러키는 하지만 그때도 모스동이 새파란 젊은놈들이 낚시대를 들어메고 散步하기는 어쩐지 맘양 中을 嫌하다

左右間 新十里상거나되는 불가운데 水利組合 개천의 낚시질터에 당도하니 그래저래 볼 맛의 ……들이 낫잠을 대이게 해가 한나저도엿다

위선 풀고기를 유리하느라고 풀에꺼록을 끼어논다

그리고나서 各其 자리여떼 말뚝을박고 洋산을 비끄러매인다 그래야 뜨가운 햇볕을 가릴수가잇스니까—。

李君이 내자리에서 바친대를 미끼를 주고 그리고 …… 나 낚시질은는 李君은 적기는하 그래서 新入生인 나에게 第一 …… 을 내주는 …… 나는 李君이 시키는대로낚시밥 지렁이를 낚시에 끼어 가지고 서발이나 멀는 낚시줄을 낚시대의 彈力을 利用해서 이 물에 다던젓다。

그리고는 낚시대를 조롬 당기어 바친대에 걸어놓고 낚시줄 중간에잇는 고동이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진득히 자리를 잡고선다 을지 하하 저놈 고동이 기묘한 信號를 하는놈 즉 스파이구나! 그러니까 물고기로보면 大敵이다。자ㅣ 언제나 물고기가 와서 낚시밥을무나?

…… 기가 …… 낚시를 잡어 체일수는업는것이다 지점로 太公望의 …… 이 여기잇슴을나는 절실히 느꼇다 아니들으면 하 太公望이라도 그냥 안저잇서야 할터이니말이다 十分 三十分 一分 二分 五分 어떠케나는 오랫동이 기다리나 고기는 날외 속도좋으고 와서 무는것갓지도 안타

여름바라보니 李君은 아주드 낚시도드리지아니한채 準備工作 中이다

『어보게 좋이 흩지롤안네!』

『흥! 그러케 작꾸 흩을려면 지릅을데리구와서 고기를 저가야하게!……진득히 기다리다가 무는놈이나 노치지말게』

李君은 太公望의 哲學을 다끈 만큼 大陸悠長하게 배포를 보인다

午後 ─詩─

金大均

『바ㅡ진、세일낭고를 기러기떼 물러간뒤는 노을떼광이의 水茶景』

파랑하늘이 숫것이 木花―송이송이 어우러진 사하의 그림빼앗발로 上昇 돋움소

키다리 愛笑한떼 버들바른 재비한쌍이

뺑아도닌 걸린―때광이도령을 까시울리난 마음이란 나의心情

여봐요

肺病三期의 고래(鯨)呻吟이 들리잔어요 그이를 실은 저ㅡ午後의直行列車 汽笛소리말에요 (丙子七月)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잇다。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鄕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 (中等以上程度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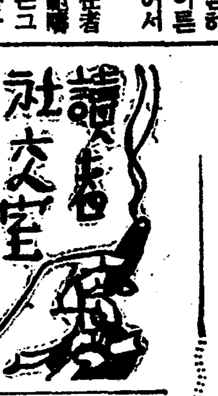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讀者社交室



▲長湍 裵某先生에게奉答 大正四年二月二日火曜는陰曆乙卯正月十七日壬辰이오며 四柱는乙卯年己卯月壬辰日辛亥時이올시다。(義城 機堂生)

▲詩人館朝君 李燦 柳致環 趙靈出 金朝奎 楊雲閒諸氏와新進 金光均 李璜海 張萬榮 朴宗植 高敏氏 張敏 朴南秀諸氏의住所를알고십사오니 右諸氏도는諸氏의知友께서 本欄을通하여敎示하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平壤 PS生

▲現在京城에게신聲樂家(流行歌手男子에게못습니다 구수한音色냉새를마르며아침 저녁으로옥은山으로 흥은들로거닐면서성대를 연습(練習)하는二十一歲의男子입니다 將來에歌手가되고시픈마음 그야말로밋츨듯이 聲樂家를憧憬합니다 聲樂練習하는데 基礎가될만한方法을 下敎하야주옵소서 洞里親友들은 小生의성대가聲樂에素質이잇다하오나 音譜도배오지못하엿습니다 코취라도바덧스면조켓습니다 漢陽漁東 娄生

▲生은 中學五年에 某事情으로學校를그만두고 지금은藝術方面의硏究를하는中인데 夜學하는동무들을도읍고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社交室로通寄하여주시압

▲다음書籍을 讓渡코저하오니 讓受하실분은 곳通知하야 주시요 全部新本 文學突

『ウエルス』世界文化史大系上下全一冊 小說 熹

咸南北靑新浦港泉 K 生

▲저는作曲學을硏究하는中이온대 여러先進作曲家들이나 더욱이初等作曲을硏究하시는분들과가티 書信으로서로알고 가리硏究하고십습니다 下記住所로저를차자주십시요

會寧邑一洞一三五 朴寧飯

▲金載聲언니! 住所가어듸십니까? 彼此에 消息이 끈난지가七個年이올시다 歲月이 갈수록언니의消息을 알고시픈 마음것잡을수업소이다 弟의집곳을 容恕하시고 다시兄弟의義를 生覺하시고住所를 알녀주십시요

京城府明倫町四丁目一四〇의一 金德波

▲讀者諸君中 左記住所와發行所를 京城府八判町百七番地로通知하야주면 대단히感謝하겟습니다 (新版)

ゴム通信 發行所 價格

大阪市 村林ゴム製造所 住所

▲李昌喜동무여! 現在何處에서무엇을하며 如何한生活를하고잇는가요? 보고나그대의작난을하구려! 아즉 몃友情을잇지안코서 生覺하고잇거든 消息을傳하여줌이엇더한가? 開城府高麗町內 讀者中에서 李昌喜이라는 女性을아시는분이게시거든 未安하지마는本人에게 直接彼女에現在所를 通知하야주시면는 그恩惠에對하야謝禮를드리겟나이다

哈爾濱新安埠安阜街六八 金연남生

▲東京서工夫하신諸先生님께 問議합니다 現在某實業學校在學中이온데 精神上因하야 學校와는 秘密히 東京私立中學方面으로轉向하랴하옵는데 早稻田中學이조흘듯하오나 現在學年으로 入學함

▲早稻田大學出版인 講義錄이나 또는 早稻田大學講義錄全部를 分割讀本한것으로 讓渡하실분은 下敎하십을 願합니다 讓渡金額과 함께 左記住所로 下敎하여주십시오 讓渡代金은 古本商店同價로 願합니다 讓渡金은 現品과 同時交換하겟나이다

市內長橋町四一 朱乘起

(以下諸君) 市內瑞麟三丁目一五二의一 金四南

▲手風琴(돈보로六十鍵)時價二十八圓中古品(買後約七個月)과約同價의 코ー넷中古品과 交換하려주시압소서 그리고 書籍商과 文房具商의 經驗도잇사오니 그런곳도希望합니다 (街頭의白影生)

▲本人은忠淸北道忠州食繡學院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잇다가 地方一面一校 普校創立되는통에 學院을못하게되고 失職을하며바라볼곳도업서서 上京하엿더니 발서上京後二個月이 갓갑도록就職못하고 말할수업는 苦痛을 맛고잇사온데 누구시든지 家庭敎師로 쓰시라면 本紙上으로 알려주시압소서

馬山 金積慈生

▲雲峰生에게 貴下가물으신日本『速記法』價格二圓五十錢送料十八錢이며 發行所中根速記學校 出版部 振替東京七〇五二七 東京市神田區九段下ビル입니다 中央速記局인바 또하나는『通俗中根式速記法』發行所 東京市世田谷區下代田清風園一〇五番地 文速記速記講習錄發行書는

▲社交室諸氏에게 못습니다 陰三月二十二日(大正八年)이 陽曆으로 何月何日이지 下敎하야주십시오

京城府孝悌町一 W生

▲成北隣前 申相五氏 당신이要求하는 早大中學講義錄 前編後編(昭和九年四月開始 昭和十年三月終了)과 附錄等이 有하오니 有意하면 讀者社交室를 通해서던지 直接 生의住所로던지 通知하면 卽時付送하여 주겟습니다

市內忠信町二六의七號(白影生)

▲文學同好諸氏에게 한가지뭇고저하나이다 저는只今二十二歲의少年으로 文藝에뜻을두고水火를分揀지못하고 넘비는形便이오나 頑固한父母와 理解못하는家庭은 生의將來거리갈路程을 여지업시깨트리고잇습니다 그러나 하라을으는 文學의情熱은 떨어질수가업습니다 이煩悶을 ……

平南中和郡海東市 鎭嘉達

▲本人이詩稿集을하나 作하고 原稿를가지고上京하엿사온데 上京後발서 五十餘日이지나도록 발버리할곳을못차저 그저잇사오며 市內어느書店에原稿를 ……는분이 손집어주지안켓습니까 原稿는 童謠도아니요 詩도안요 그러라고 民謠나流行歌도아니라 農村과工場그리고 街路에서입하는少年들의노래입니다 原稿의題는근로少年詩謠集『일하는동무』

▲社交室諸氏에게 ……

一、現在滿洲에서도朝鮮과가티 ……가잇는지?

一、衛生(特히醫藥)에關한 通信 ……

夏節衛生

身體를마르게하는病

梅毒을快癒에로引導

最善의治療는

爲先血液의淨化로부터

大洪水와

大暴風後에는、흔히 惡病이 流行한다하지만、梅雨後에는梅毒도、伏在된것이 惡化하는것이다。그例를들면梅雨期에降雨가업더라도、人體에 조치못한濕度가생기여、그것이梅毒保菌者에 影響을주게되는것은、即梅雨期가지는때、意外로病勢가 進行되게된다。梅毒은 겨우 一匹의도레포네ー마이지만、體內에 存在하야잇스면、반드시그幾千幾萬倍나 激增하야、血液과 脊髓液은거이全身 ……

局部局部에

……治療上 어려운것은、梅毒에는 潛伏期가잇고、오래人동안 體內에休息하야잇슴으로써 누구든지 全治된것으로만알고、治療를中止하면、病勢는依然히 進行하야 時期를 엇보아 再發함으로써、梅毒에는 一刻이라도 不注意를해서는 안된다。例하면 梅雨中에 날문濕氣를밧게 되든가、夏季에 營業에 障害를 밧게 되든지、하든때에는 表面어떤시기에서 도레포네ー마는 忽然히再現하야、皮膚에 發疹(여드름가튼부스름)이생기며、脫毛、咽喉障害、鼓鼻等의

보기에추한

病狀、內科的으로는 各內臟을 傷하야、神經系統을 이르키며 腦中樞를 犯하야 運動不調를 招來한다 때로는 新深症이라해서、腦의 活動을 일코며 狂人이되는일도잇다。尤甚한것은 遺傳梅毒에는、產出한幼兒를 低能兒에 빠지게하든지 受胎를 障害하든지 흔히 早產에 流產을 겨게하든지 一時를 수업는 梅毒의 弊害는 個人으로는 勿論、社會的으로도 가장 悲慘한것이다

今日은더욱

그런데 病者의 多數는 前述한바와가티 治療를 中絶하든지 全然 治療치안는자들 治療上의 缺陷으로 梅毒患者의 數는 依然하게 激增되고잇다 이缺陷을 根絶안코는 梅毒이 根治될 날이업슬것이다。

그러치만 今日의醫學은 그와가튼憂부터온 梅毒을 驅除함에는 充分한 治療上의 發達을遂行하고잇다。特히梅毒內服藥으로서 十餘年來의 效果에依하야 信賴를集中하고잇는 ベルツ丸은 鈴木日本製藥社가 責任을가지고 精製한 正當한梅毒專門藥이며 이것은 梅毒의初期는勿論、第二期、第三期梅毒 어떤病狀에나

―即梅毒、腦梅毒、脊髓梅毒、遺傳梅毒、骨梅毒、皮膚、發疹、神經痛、류마치스、動脈硬化、便秘等 모다梅毒性의輕重을不問하고 期待에 어그러지지안는効果를 認定할수가잇다。

ベルツ丸

을服用하야 곳알게되는것은 服用함에따라 血液과脊髓液이淨化되고 體內의梅毒性毒素의모ー든것을 이溶解的으로 外部에 排泄되며 이結果는 全身的으로 榮養이高進되며 血液循環을 旺盛케함으로 消化機能等도 가장 調子가 잘되며 그따문에 食慾이나고 血色이良好하며 頭腦가明快하며 自然日常의動作이 活潑하여지며 病勢의進行을防止하며 더욱殺菌快癒의 기쁨에로引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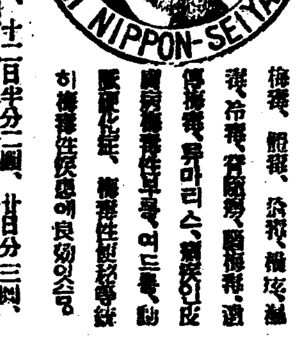
只今다시말할

必要도업시 梅毒의危險은그治療와 關係가 如何에 따르므로써 在來의 注射를 기르하야 治療에集中하지안어서는안된다。그러한意味에서 效果를자랑하는 ベルツ丸의 服用을 우리들은 조심으로推奬하는바이다。特히 遠距離로서 服藥으로서 가장 廉價인ベルツ丸은 經濟的으로도 至便하것을 附言하여둔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腦梅毒、脊髓梅毒、遺傳梅毒、骨梅毒、皮膚發疹、神經痛、류마치스、動脈硬化、便秘、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定價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徵用)卅圓 送料四十二錢 代引十錢五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涼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連載野談

布衾記 (六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복울찟는그칼 〔九〕

자박、자박、가벼웁게 신끄는 소리!。

이것은 아마도 공주의 발자최

각각、각각、괴이하게 맞치는 냄새!。

이것은 분명히 공주의 몸에서 풍기는 향긔

알는、알는 첫사초롱의 거름자!

어것은 못지아니하야도 공주자 갓가히 온 불빗

과연 먼저 젊은 궁녀가 하나、둘、셋、차례로 들어서고 그뒤로 공주가 늙은 궁녀들의 부축으로 들어오다。

이때 호동왕자는 몸을 급히 일히켜 공주와 정면이되는것을 피하야 섯다。

그런데 공주는 三령으는 족시로 락랑왕을 향하야 단정히 절하고 역시 호동왕자와 정면되기를 피하야 돌아섯다。

『공주아기!。이 고구려 왕자께 례로써 인사여주어。』

하고 락랑왕이 공주를 처다보며 명령하얏다。

공주는 몸을 도리키고 부끄러운 비출 띄우며 호동왕자를 향하야 읍하얏다。

공주자 두손을들어읍할새 그두소매 끄레 달린 헌한삼은 힌구름이 피어내리는듯 방바닥까지 찬란히 느리지여 공주의전신을 감추어버린다。

호동왕자는 몸을 도리킨뒤에래 응큼새공주의 얼골과 몸을 가리고 교하신이 퍽 미원보엿다。

락랑왕은 다시 공주를 명하야 거리 안게하고 호동왕자는 안젓든 자리에 다시 안께를허하얏다。

공주와 호동왕자가 자리 좌정한뒤에 락랑왕이 약간 처량한 비출 띄우며 호동왕자를 향하야

「내、영도가 말하야 다른 자녀가 만지안코 오직 이 공주 한몸。그래서 내는 공주를 물론 역이는것은 호동 그바게 아들로도 생각하고 딸로도 생각、그러나 다만 사위로는 생각할수 업구려。」

하며 서구픈 우슴을 크게 웃는다。

호동왕자는 락랑왕의 탈대답을 무엇이라 대답해야 오흘지 다만 허리를 구피어 잘드렸다는 태도만 보이고 다시금 몸을 단정히하얏다。

그런뒤 부지중 낙랑공주에게로 갓다。

「참 미인!참 미인! 정하 결색이라 아니할수업슬것。」

하며 호동왕자는 단번에 그화용월태가 구비한 공주의 아름다움에 취하야 정신까지 았질하얏다。

공주는 얼골만 어엽부고 래만 어엽분것이 아니다。

그 마음씨와 솜씨까지도 모두 아울러 어여뻐다。

그럼으로 공주는 미인중에도 안팟이 다 어여쁜 미인이다。

그런데 호동왕자와 공주가서로 대면이되자 호동왕자만 은근히 공주의 어여쁜 자태를살핀것뿐 아니라 공주도 어느틈엔가 역시 호동왕자의 잘난풍신을 은근히 엿보앗다。

「참 남중절색 아니、우리인간의 선관(仙官)!」

하면서 공주는 호동왕자의 잘난 풍신을 살피뒤에 속으로써 무한 탄복하얏다。

그러나 공주는 호동왕자를은근히 보다가 호동왕자의 눈과 마주첫것이 부끄럽고 또는 아무리 어버이의 명령으로 다른 남자와 한자리에 안께는되엿슬지언정 그를 은근히 바라본것은 분명히 녀자의 행검에 어그러진것을 후회하엿다。

이때 락랑왕은 모든것을 못본체하나 벌서 그 빠른 눈치로 공주의 눈이 호동왕자에게로가고 호동왕자의 눈이 공주에게로 가는것을 직작하얏다。

「그럿지 백년가약을 맷는다면 그것은 천생배필을 엇지아니한것이지。」

하며 공주와 호동왕자가 은근히 서로 본것이 범연한 뜻이 아닌것을 매우 기뿌게 생각하얏다。

그래서 락랑왕은 호동왕자에게 공주와 백년가약 맷기를 뜻청하고 시펏다。

그러나 혼인은 인륜대사임뿐만 아니라 호동왕자의 의향。더구나 대무신왕의 의향이 어떠한지 집작할수업스므로 아직도 설하기가 어려웟다。

「호동 아모리 보아도 천생배필 아무리 생각하야도 역시 천생배필」

하며 락랑왕은 공주와 호동왕자를 또다시 번갈려가며 도라다 보앗다。

娛樂

토ー키ー의 根本問題

—몬타쥬에 對한論—

② 林蔚川

에이젠슈타인의 몬타쥬見解는 要言하면 컷드와 컷드의 結合이 아니고 컷드와컷드사이에 일어나는 衝擊(Impingement)이라고한다。여기서는 크레숍의立場은 깨긋이 揚棄되여버린다

에이젠슈타인은 하나의 컷드를 달은컷드에附着하는대서 무엇을 展開식힘녀는 方法을 몬타쥬라고는 하지아니한다。가령 그러한것이 몬타쥬라고한 크레숍의理論대로 우리가 쿠랑크를 돌녀본다고치자。—여기 한사람의 女子를撮影한다。即 그女子는 커다란 거울(鏡)아페안저서 눈과 눈서풀 그리고(化粧) 입술에 쿠주를칠하고 그리고하이힐(靴)를 신는것이다

이러한 한女子의 化粧을하는 場面을 크레숍流로 撮影할때第一의女子의 입술을 第二의女子의발(足)을 第三의女子의 엇개를 第四의 女子의눈을 撮影하고 그 네개의 斷片을一定한相互關係에서 接觸식혀서 그材料의 現實性을 이저버리지안토록하는대서 全혀 새로운人間을畵面우에서 낫케하는것으로서 보게될것이다

에이젠슈타인은 맛上例에서보는 컷드의連續에서 오는 아이데아를認定치아니하고『서로獨立한두개의 컷드가 衝擊하는대서 일어나는 아이데아』라고몬타쥬를 定義하고잇다。

이리하야 몬타쥬는 衝擊이된다例를들면 입(口)과 개(犬)는—짓는것을 눈(目)과 물(水)은—눈물을表立되든두개의 컷드는『相剋』의 相互關係에잇다 거기서一種의表現的效果가 생기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컷드와컷드사이에는 創造的인 모멘트가存在하고잇다(이것은 끄레가서 批判하기로한다)

이러한 에이젠슈타인의 立場은「오버롤·몬타쥬」라고 불리우는 所謂 辨證法的發見을可能케하얏다 이「오버롤·몬타쥬」에 依해서 토ー키ー의 構成의基礎工事가 附與되는것이다 그러면 크레숍의理論을 展開식힌푸도킨의 見解는어떠햇는가 푸도킨은 말하기를 몬타쥬의 目的은觀客의注意를 成分A의 要素는 或은B의 要素에向케하는대서 場面을 進展식히는것이다 撮影機의 對物렌스는 觀察者의 눈의 代用을한다 人間의細部에까지向해 맞수잇는 카메라의轉向은觀察者의 눈과똑가튼 必然性미레서支配되야 잇다 映畫作者가萬若 最大의 明瞭性과 强調平明性을 맨들나할것가트면 爲先 場面을 個個의 斷片으로 分割해서 撮影하고 그것들의 個個의 斷片을 結合식힐때 作者가重要하다고생각한 要素를 觀客이注意도록할것이다(푸도ー킨 映畫監督과 映畫脚本論 第一編第四章의二、場面의몬타쥬)이말은 크레숍의 컷드의連續的方法이 몬타쥬라는것을 裏書하는것에 不過하다。우리는 映畫에잇서서 表現方法의 歷史的特質에서 이連續的方法이(畵面의轉換) 映畫라는 藝術的으로의 基本的으로된主從的性質인것은 認定한다 따라사이렌드映畫에잇서서 그런畵面의 轉換은 視覺的轉換뿐으로된것도아다 우리는 크레숍과푸도킨에게서 分析되몬타쥬論만의로서는 滿足하지아니하는것은 우에서 이미 에이젠슈타인의理論을 暗示한것으로 한거름기피 드러간것을 알어야한다

에이젠슈타인의 唯物辨證法的發展『오버롤·몬타쥬論』은 어떠한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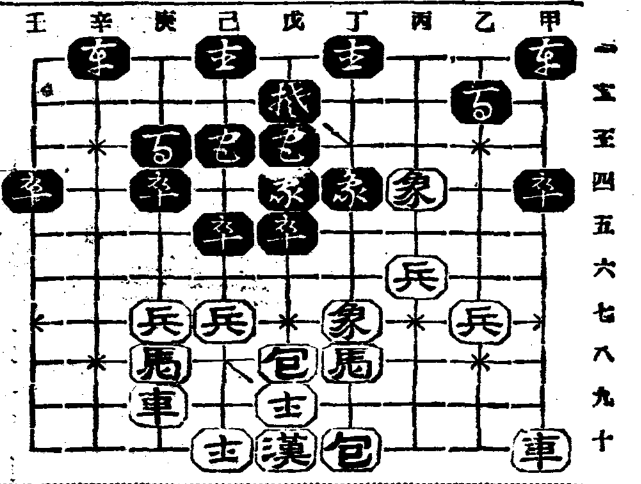
事物의 發展의契機는 相互矛盾에잇다 따라서 한컷드(畵面)을 構成하는 諸要素사이의矛盾 畵面과畵面과의對立 토ー키ー에 잇서서는音과 畵와의 矛盾이몬타쥬의 連續과 轉換과를 形成한다고한다。

에이젠슈타인은 映畫一種의情緖的活動의 루나파ー쿠고 그가 提唱한「아트락숀·몬타쥬」에 依해서맵들려진 情緖的活動의 統合이고 配列이고 따라觀客을「感動」가운대로 이끌려드는것이 映畫의 目的이라고한다 이런理論은 말할것업시 크레숍의 斷片의相互關係 그繼續注 轉換으로서의 몬타쥬가 觀客에게 作用하는 映畫的作用의 基礎的手段이란것의 擴大理論이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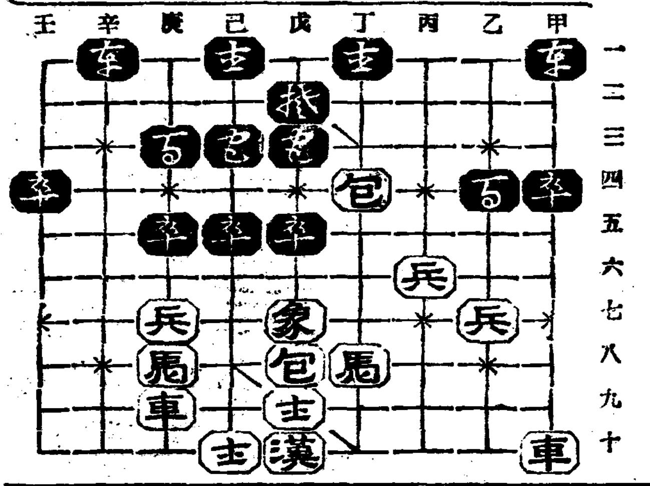
滿一兵 先手 李在鳳 對 李英鎭

◀第十三手圖▶



◀第十四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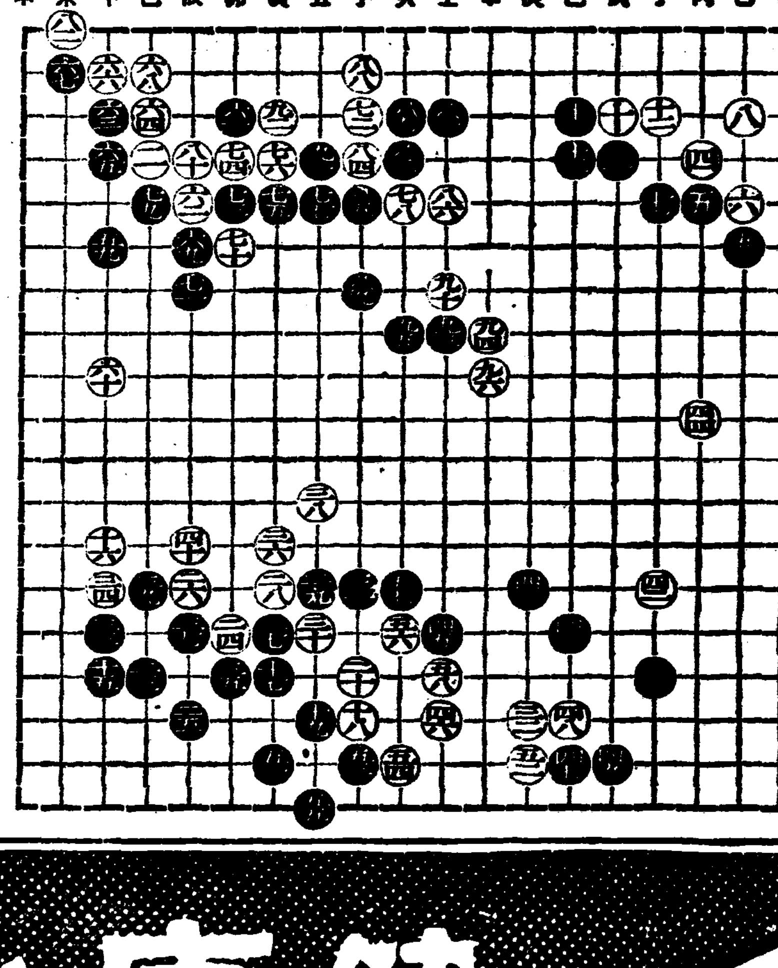
戊八包—戊四
己三●—己七打兵
戊四包—戊八
己七●—己五
丙四象—戊七
庚四●—庚五
丁七象—乙四呼將
乙三●—丁三
丁十包—丁四打象
丁三●—乙四打象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丁奎奉
黑先 權榮郁

●	[illegible]	壬의三
○	[illegible]	未의一
●	[illegible]	癸의四
○	[illegible]	子의四
●	[illegible]	子의五
○	[illegible]	壬의五
●	[illegible]	癸의三
○	[illegible]	子의二
●	[illegible]	子의七
○	[illegible]	壬의七
●	[illegible]	丑의四
○	[illegible]	寅의三
●	[illegible]	壬의八
○	[illegible]	辛의八
●	[illegible]	癸의八
○	[illegible]	辛의九



棊極文氏評曰 黑壬의三을 白이未의一로 應함은 失策이아닌가 癸의四로 中央을 連絡하면 勢力範圍로 一層더 擴大할거이요 己庚五六區黑叢制限도 便利할이 默想된다 黑이 癸의四로 白을斷絶하야 攻爭場面을 展望하니 요다음 綜合方策이 頗有趣味 일가하노라

라듸오

十六日 (木曜)

◇午後六時三〇分 連續兒童劇(二) 딸나라 二景
—配 役—
英 順……金順媛
京 子……吳貞植
사냥꾼……韓東熙
어미토끼……李玉琳
새끼토끼……金仁洙
구 름……朴容世
공 거……金健成
몰 ……崔淳根
딸나라王……梁性煥
버들피리會 指揮 太成均 効果 趙舜衡

◇同六時三〇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二)〃植物採集〃 李德鳳

◇同八時 講演〃東西習慣이야기〃 金庠基

◇同八時三〇分 달거리外 一、달거리 二、적수단신 三、매화타령 四、리별가 五、[illegible] 六、노래가락 李眞紅 細笛 高敬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그女子의半生〃一景 九幀…張河淑 멜리…朴響多 似珠…白英喜 金觀珠…朱泉玉 짝크…張前善 鈴蘭會 演出 張石濤 効果 李메리

◇同九時三十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白鷗詞 金花香 金蘭珠 大笒 金永根

第二放送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野村行進

◇午後六時(東) 이야기 松永正雄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浪花物語 谷天郎

◇同八時三〇分 (東)寄席 藤田立花亭 中繼

十七日 (金曜)

◇午後零時五分 긴念佛 一、긴念佛 二、자진念佛 三、벽타령 四、방아타령 五、경복궁타령 六、漢江水打鈴 田紅桃 金彩心 細笛 姜錫洙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무엇이든지決心이第一〃 黃信德

◇同六時三〇分 管絃樂 DK管絃樂團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三)〃昆虫採集〃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演〃伏의이야기〃 權惠奎

◇同八時三〇分 빽코-드音樂

◇同八時四〇分 (東) 管絃樂 (近代及現代音樂第七回) 組曲〃常人貴族〃…리히알트·슈트라우스作曲 一、第一幕의序曲 二、메누엣트 三、武術先生 四、裁縫師의登場과춤 五、리우리의메누엣로 六、쿠-란트 七、구레온트의登場 八、第二幕의序曲 九、食事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南漢山城 二、唱劇調 水宮歌 朴初月 鼓手 丁元模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로-커中繼

◇同六時 (東) 라듸오·스켓취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名) 浪花節

◇同八時三〇分 (東) 歌謠曲

◇同八時四〇分 (東) 管絃樂

十八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東) 輕音樂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夏期休暇를압두고 張和順

◇同六時三〇分 童話 秦金星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東亞日報社 高永煥

◇同八時 講演 讀書와人生 金晉燮

◇同八時三〇分 農村歌謠 水色農夫 張百中 趙春奉 朴錦山

◇同九時 流行歌 朴今同 李壽男 趙允元 金貞九

◇同九時三〇分 古談『背信敗亡』 張志浩

第一放送

◇午後六時(名) 傳說童話

◇同七時三〇分(東) 라듸우 드라마

◇同八時(大) 피아노獨奏 레오나도·크로이쯔

◇同八時三〇分(東) 講演

◇同九時 時事解說

☆曆☆

七月十七日 (金)
陰甲午五月大(廿九日)
庚子·土·鬼·執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健康と福運!二重の喜びを贈る御中元!

今!大景品付賣出中
赤玉ポートワイン
一本으로도 空籤업시 總當籤!

一等 (一千口)
姿見鏡台 ……(左記の内お好み一品) 一台
座敷用机 …… 一台
八端座蒲團五帖組 …… 五帖組
純毛二枚續毛布 …… 一枚

二等 (三千口)
家庭用自動秤 ……(左記の内お好み一品) 一台
洋食器(ナイフ・スプーン・フォーク) …… 三組各六本
家庭用常備救急箱(各種藥品詰合せ) …… 一個

三等 (五千口)
デッキチエア ……(左記の内お好み一品) 一脚
家庭用大工道具(六品入セット) …… 一組
ハイキングセット(三品入) …… 一組

四等 (一万五千口)
電氣アイロン ……(左記の内お好み一品) 一個
割烹着 …… 一着
番茶器 …… 一揃

●應募者全部에
味の素 (아지노모도) 小罐一個 贈呈

●應募方法 赤玉포ー트와인의 包紙의레텔 一枚와 口金券(栓이 아닌 을씨운鉛製)의上部 一個를 一束하야 레텔의 裏面에 住所姓名明記한事、左記에付送하면 抽籤券과 味の素를 送呈함 ●郵送은 封書면 四匁까지 三錢切手貼付할事 本賣出區域日本全土(但 臺灣을除) 應募期間本年八月末日까지

送處
大阪市東區住吉町五二
壽屋サービス係

天然甘味 滋精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置けば置くほど品が良くなる葡萄酒

平元線開通에 對應 元山港擴充要望
商會議員陳情次上京

【元山】원산항(元山港)의 시설은 수용력을 약이십만키로톤을 목표로한것인데 벌서원산항은이것을 훨신넘어 작년만해도 약오십만키로톤이되어잇는 현상으로 소화십사년에는 평원선만 포진선, 중앙선과도 준공개통에따라서는 이지방의 막대한 물산이부동항(不凍港)원산에 집산될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인데 더욱이 평안도의 광산물이 원산에온다면 이항구에 대하야서는 별로의문이 업스므로 부득하항교통입이 최급할수박게업는 처지이다 이러한바와한 상당시설을가진 원산상공회의소에서는 수사차 총독부당국에 진정한바 잇섯스나 상금도 아모소식이업스므로 다시지난십사일 김경준(金景俊) 삼우(三隅) 대전(大田) 삼의원을 상경시켜 원산항의제설비확장을 구속히 실현케하여달라고 진정하얏다고한다

第三回中部朝鮮 個人庭球大會
揷橋支局後援

【禮山】충남예산삽교역전(忠南禮山揷橋驛前)에잇는 삽교체육회에서는 매년에개최해오든 제삼회중부조선개인정구대회(第三回中部朝鮮個人庭球大會)를 본보삽교지국후원하에 오는팔월이일에 동교코ー트에서 개최하기로하고 동체육회에서는 방금 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일반선수의 만흔참가가 잇기를 바란다고한다

一、時日 八月二日午前九時
一、場所 揷橋普通學校コート
一、賞品 優勝旗 副賞多數

◇賞金 一等五十圓 二等三十圓 三等二十圓 四等十五圓 五等十圓 七等까지

마 의외에 상금을 거는것 개최키로되엿다는데 상품은 좌와갓고 벌서ー에서 가입신청이 답지하 난ー 라고한다

本社馬山支局主催 全朝鮮씨름大會
八月中旬月浦海水浴場에서

【馬山】본보마산지국에서는 전선적으로 유명한 월포해수욕장개장(月浦海水浴場開場)을 리용하야 오는팔월중순경에 동해수욕장에서 전조선씨름대회를 개최코저 방금마산부(馬山府)와협의하야 만반준비에 노력하는중이라는데 각지방선수들의 참가도 환영하는바이며 등수는오등까지로 당일상품도 상당히만흘모양이라한다

砂鑛土壁崩壞로 鑛夫二名死傷

【成歡】금의 산지로유명한 성환지방에는 최근수삼년동안에 그산출에도 만흔지만 그를채굴하느라고 생명까지 희생한자들도 적지안타 하엿는데 지난십사일에도 성환리(成歡里)김래의 사금광(金砂鑛)에서 토벽이 무너지는바람에 작업중의 광부두명이 치여서 그중한명은 폐장파열(肺臟破裂)로 즉사하고 또 한명은 원편 발목이 절골되여 수원도립의원에 입원치료 중이라는바 그즉사한 사람은 본적을 충북음성군 음성면 삼생리(忠北陰城郡陰城面三生里)에두고 성환에와서 광부노릇을하든 장수성(張守性)이라 하며 중상을당한 사람은 신원이 미상이라한다

四萬餘普校兒童中 蛔蟲保持가八割
黃海道衛生課調査

【海州】황해도위생과(衛生課)에서는 얼마전에 황해도내 이백칠개보통학교아동 삼만구천팔백륙십사명에대하야 회충(蛔虫)유무를 조사하엿는데 그에의하면 전아동수의 팔할이상인 삼만삼천일백삼십일명이 회충을 가지고잇는것이 판명되여 당국에서는 그회충구제책에 부심중이라 한다

韓鼎教長老의 廿五週記念式

【平壤】평양부내관후리(館後里) 장대현교회당(章臺峴敎會堂)에서는 이교회의공로자 한정교(韓鼎敎)장로의 장로선거 이십오주년기념식을 성대히거행햇다 한정교장로는 지금부터 이십륙년전에 장로장립(將立)을받고 이래 만이십오년동안 동교회의 전도회장 소아주일학교장 주일학교장으로 력임 헌신햇고 숭덕보통학교(崇德學校)와 양로원(養老院)의회계의 중임으로 마라 교육방면과 사회사업방면에도 헌신적노력을햇다 또한 상공회의소 평의원, 부협의회평의원등 평양상공계방면에서도 적지안흔노력을하여 금일과가티구시가 상계의진흥책을 도모햇다 한다

人命을害하는 썩은〃빠나나〃!
仁川署에서嚴重取締

【仁川】여름철에 주의할〃빠나나〃얼마전부내 화정(花町)에서는〃빠나나〃를먹고 곽세소년이 즉사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 소관서위생계에서는 일반과물취체를 엄중히하는중이라는데 지난십사일 화정상 도산정(桃山町) 리봉희(李鳳熙)의가질고잇든〃빠나나〃가 썩엇음을발견하고 엄중설유하야 방면하엿는바 이후로는설유뿐아니라 구류까지라도 하야 엄중단속하리라한다 아동가진일반가정에서도 극히 주의할일이라한다

烏致院에서 全朝鮮圍棋會
本報支局後援

【烏致院】경부선조치원 명월관에서 조치원기구구락부(烏致院棋友俱樂部)주최와 조치원사우구락부(烏友俱樂部)후원으로 경성기원(京城棋院)의명수 류진하(柳鎭夏)씨외수인을 초빙하야 전조선위기대회를 래십팔일(土曜)부터

愛慾의彼岸 【54】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운주는 전화를 걸엇다。 김장로를 차잣다。

「어듸요?」

하는김장로의쉬인 소리가 들렷다

「저올시다。 운주올시다。」

「응 왜?」

하고 김장로는 운주가 말을 하라는것을 막는드시,

「문임이 거긔 아니다녀갓니?」

하고 물엇다。

운주는 가슴이 뜨끔하고 낫을 붉히면서,

「다녀갓습니다」

하는 소리가 좀 떨렷다。

「언제?」

「식전에 다녀갓서요?」

「어듸로 갓서?」

「병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병원으로? 어듸서ー」

하고 김장로는 문임이가 어듸로에게도들렷다。

「저 오늘 돈좀 할 상의하겟스니 거해주세요」

하고 운주가 말을 떼 하려할때에,

「왜? 돈은 무엇하게? 오 건호가 또거긔 갓는가보구나 줄돈 업서 벌며 그럼 세견하라드냐?」

「그래도 풍속에 멀어져가이라고ー」

「글세 아모ㅅ돌도 뭘해。 청하애 그래서 얼마라고? 그런사람을 다 구제하라면 나라ㅅ힘으로 못 해 본래 내보내라고 하면 미이니까, 다시는 오지말라고 말하고, 보름ㅅ동안이나 쉬엇스니까 한푼도 안주어도 조커만 다서 아니온다거든 돈 십원만 주어서 보내」 하고김장로는 나고 물으라고 안되엇다 하고, 말을 끈코는 전화를 끈허버렷다。

운주는 문임이란 말에 가슴이 설레는것을 금할수가 업섯다。 김장로는 분명이 문임이때문에 상성이 되엇다。 김장로가 어젯밤 사랑에 누어서, 혹은사랑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쾌락의 꿈을 안고 문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마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문임의방으로 들어와 보아, 문임은 간 곳이 업서, 대문으로 나와보아, 대문이 열렷서ー 그리고는 실망과 분노와 무료로 밤을 새우던양을 운주는상상하엿다。 그리고 이것이 필시 큰 일을 내리라고 생각하엿다

「쓸데업서요 설주사」

하고 건호는 다시 전화를 걸라는 운주를 향하야 웨첫다

「김장로가, 웬일인지 운좋은 단단이 꿈이 나서 도모지 다른사람은입도 못 벌리게해요」

그래도 운주는 다시 전화를 걸엇다。

「제야요。 운주입니다」

하고 운주도 가슴ㅅ속에 누르기 어려운 흥분을 느끼면서도 아모조록 목소리를 냉정하게하라고 애를 썻다。

「웨 그래? 무슨 일이야?」

하는 소리가 거세 안는 건장로편에서 또 전화를 끈허버린다。

운주가 말하기전에 건호가먼저,

「김장로 하는 말은 다 들엇소이다。 십원만 주어서보내라고요? 다시는 오지말라고요? 오지말라면 말지오。 그러치만 내게집, 자식 다 죽여서 무덤노코는 이놈도 죽겟지마는 만만히 가만히는 안숙을걸。 그 십원이라도 주시오」

하고 손을 내어민다。 그 버린다섯 손ㅅ가락이 경련하는 모양으로 떨린다。

운주는 아피 캄캄하여짐을깨달앗다。 제가 은인이라고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대하여오던 김장로가 어떤 사람인것을 알게되것 갓고 또 운주자신의 장래가 필경은 건호와 가리 될수밧게 업는것을 분명히 본것 가탓다。 마음가타서는 운주는 당장에,

「나도 나가오」

하고 건호와 함께 나가버리고 시펏다。 나가서 구르마를 끌어서라도 건호의 온돌벽의 궁경을 도아주고시펏다。 추삼이가하던말ー의리니 인정이니 그것은 다 옛날에나 잇던것으로 전긔등이 들어온것을 보고는 다 죽어버리고 말앗다는 말이올흔듯하엿다。

림질을곳치자

남편에게림질기운이잇으면 반듯이부인께전염되나니 부부협력하야 화설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제일조흔약「겐고ー루」로 치료하시사 속히 근치식혀버립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림질을 그리 대수롭게생각하시지안으나 그 해독은 참으로 큰것입니다

첫재로 자기자신에게 하게되며 후에는 전염 아무죄업는 집안사람의게 무서운부인병을 옴기며 세재로 민족건강을 헤롭게 만들어줍니다

더구나 림질은 제대로 二三週日안에 만성증(慢性症)으로 병세가 변하는까닭에 그러케쉽게 든 고롱과고통이 증가되는 로 혼이 이때에 쓰시든약이

선택 치료한경험에 그리쉽지 안흔것을 져당하시로 「림질은곳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만흐시나

종래의치림제의약점과 새로발명된근치로법

종래에는 먹게겨 편하시다고 **내복**약을사용하야 오셧는데 그원료는 반듯이백단유(白檀油)를 사용해야만됨으로 그약의성질상위장에 손병을 남겨주고 약한기운으로 환부에 작용하며 먹는 기한만 걸고 약만 끄치면 또다시 재발하는 것이엿습니다

병원에서 절문의사의 보충한 최고리상적치료제「부라온製겐고ー루」를 발명하시어서세계의학계에 일대파문을 이르켯습니다

더구나 동일(同一)의 「수리인」 前博士가 「내복약으로는 결코 림질은곳치지못한다」는 림상보고이래 내복약은 병세를일시적 안정도 는 리뇨제(利尿劑)에지내지 모하다는것이 명확하게되엿습니다

그러므로 림질의단기 경경근치료법은 세계의학계의큰연구거리이엿섯는데 전통경경원유파 길원병원장 작등영선생이 십여년동안 수십만의림질환자의림상치료와 새로운학설의연구로 재래의치림제의약점과 결점을모ー도 롭이요 림질자림치료에도 적당한 약인것이 특징이며부라온製의 한방울은 재래의치림제가 절대로 범치못하는 뇨도조직심부(尿道組織)에 뿌리백힌 림질균을곳곳어며 적접 환부에 작용함으로 콕콕 집어내는듯 속속드리뿌리 박혀잇든병원균은빼버리며 약기운은 국부로부터 전신에 퍼저서 전신의고장을다스리고 아픔이곳 개이고 솟아나든고름이 쏘다저나오고 단시일안에 오줌이 맑어저서 무슨약보다도 속히

근치되여버림으로 이런것쯤에 또어데잇겟슴니가!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 치료효과가 낫타남니다!

부라온 製

겐고ー루

림질치료시일을 단축식혀서 三千里江山 방방곡곡의 환자제현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고통에서 속히 버서나게하여서 무슨약 보다도 속히 근치되다고 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는 本劑를 아직 써보시지 못한 환자를위하야 특히염가의 보급약을제공하야 널니 「겐고ー루만이 림질근치약이다」란는 진묘를인식케하는바이오니 늘 재발이되야 고롱밧으시든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본제로치료하시사 한로바삐 근치의 기쁨을어더주시기바람니다。 조선국문으로 병세를자세히 쓰시고 본보독자라고 통지하시면 최선의 치료방법을 알니워드리며 특히 송료를 부담하야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림니다

자세치료서 무대진정

「의가」 보급약(용래별) 一圓九十錢　三五人(十七日分)三圓八十錢

東京市芝區通新町 日東製藥合名會社

K—121

月經 不順과寡少

女性의美와健康을 지여내는卵胞호르몬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國際標準品으로一位를占한結晶性製劑

錠劑(百單位)　三○錠(一圓五○)　一〇〇錠(三圓五○)
(五百單位)　三○錠(一圓六○)　五○錠(三圓五○)
粉末(二五○千單位)　一〇瓦(一圓六○)　三五瓦(三圓六○)
注射液　百、五百、千、一萬、五萬單位あり。

オバホルモン은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식히는重要한卵胞호르몬으로써、卵巢機能을活潑케하는活力減衰된諸臟器의機能을賦活게하며、新陳代謝를旺히하며、女性의健康을保護增進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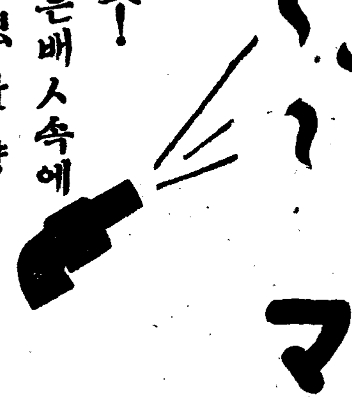
女性神經衰弱、憂鬱症、月經痛、初老期、「月經閉止年齡」의頭痛・心悸亢進・四肢冷感・視力減退

乳汁의分泌不足에도賞用된다。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帝國社臟器藥研究所 東京市大崎町

36—880(O)

總動員! 今日은배ㅅ속에 蛔虫산양



下虫劑 マクニン 마구닌

效果조코먹기조흔

一日量	錠劑	すり
大人	.30	.20
十六歲	.75	.50
以上	1.35	1.00
		2.00

御中元御進物に「虫除いしろ茶子菓」
大阪市東區道修町・東京市日本橋本町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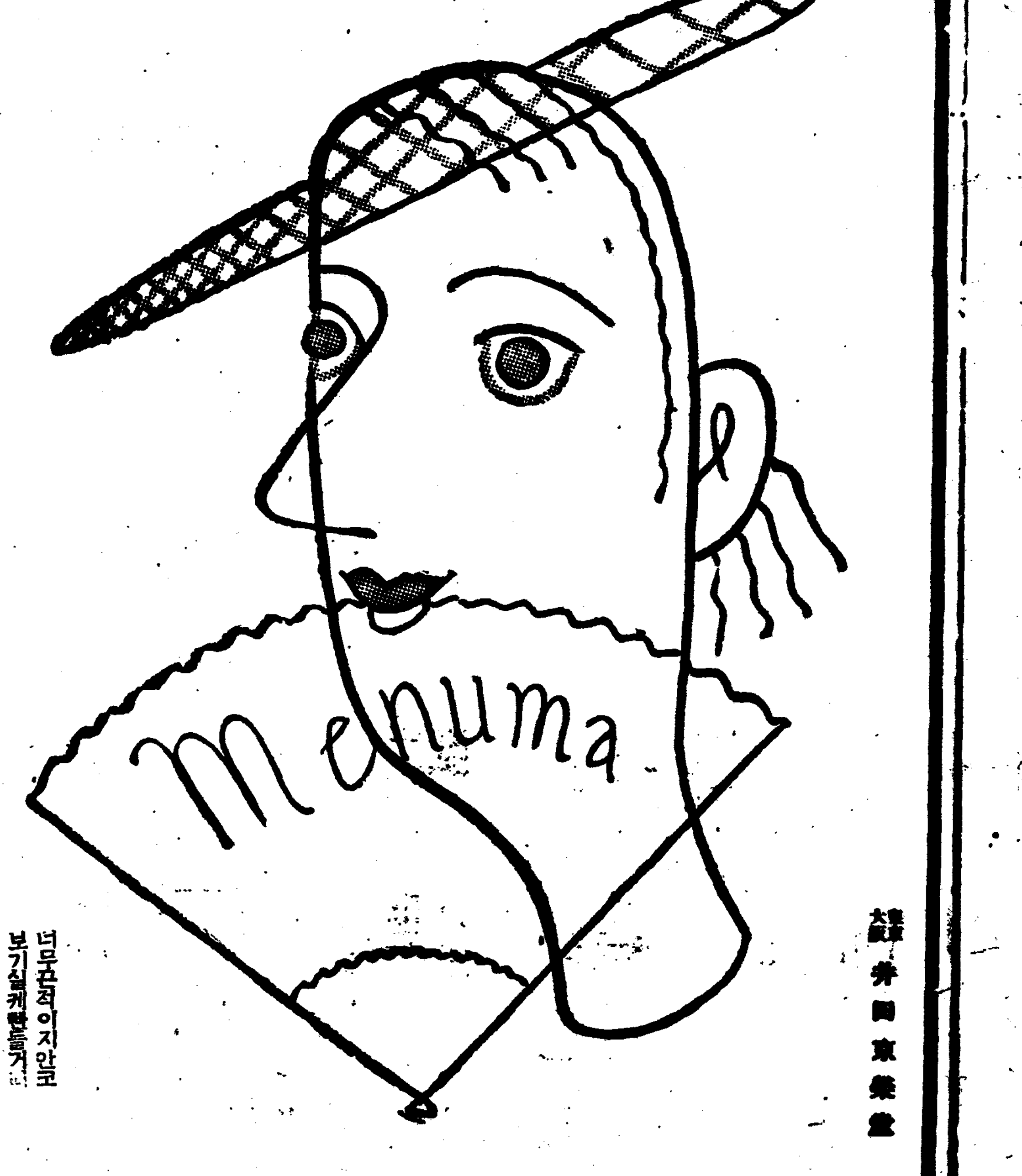
M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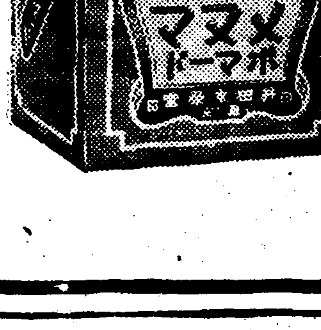
麗艶한黑髮!

洗髮前의頭皮에……
비슬때의毛髮에……
메누마를엷게솔에발러
使用하야주시요!
이것은毛髮에生氣를주고웨ー부를오래가게하는美髮에의焦點!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ー도

메론精油含有 純植物性





너무끈적이지안코 보기실케빤들거리지안코香氣가… 하고 旂髮이容易한

東京 大阪 井田東榮堂

MP—49

當る十六日特別大公開　大人四十錢學生卅錢小人廿錢(階下席)

第一回 午前十一時
第二回 午後二時
第三回 同 六時四十分

新興キネマ東京大泉超特作
雜誌婦人俱樂部連載
原作 吉屋信子女史
脚色 陶山密
監督 田中重雄

續女の友情 愛と聖風雨篇

龍岡楓＝伏見信子
村瀨幸子＝霧立のぼる
堀初江＝飼影公子

廿世紀フオックス超特作日本版
監督ダヴイッド・バトラー
テムプルの 輝く瞳
シヤーレイ・テムプル主演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超特作
雜誌少年俱樂部連載
原作 高垣眸
監督 渡邊新太郎
快傑黑頭巾
大谷日出夫 一人二役主演

永樂町 電本○五三番 中央館

七月十五日부터 晝夜
青春座公演(第二週)
愛劇家의 一大福音!
朝鮮演劇史上의 金字塔
崔獨鵑先生脚色
大悲劇 端宗哀史 十五幕十七場
(一夜前後篇全部上演)

사람으로써 나ㅅ자마자사람이 端宗이시외다 임금으로써 나ㅅ자마자임금이 端宗이시외다 端宗은이 世上을 갓하시면서 十七歲의 짜른生涯를 눈물로 마치시엇습니다 이 東亞의 史乘과 古今의 人情을 通하여 의롭지 못한 悲劇의 主人公 端宗의 生涯를 말함은 必要도 업사외다 배반하는무리의 알미운心情에주먹을쥐고義롭게살아가는 生命을 草芥같이버리는선비들의 義로운 곳이 ……

次週豫告 (外、喜劇一幕上演)
李光洙先生原作、李雲方脚色
再生 三幕五場
青春座員總動員 登場人物百餘名

西大門町 電光 3 二三番 東洋劇場

十七日ヨリ 五日間 晝夜三回 入替無シ

▲透明光線 ユ社 ボリス・カアロフ・ベラ・ルゴシ主演
▲舞臺に立つ妻 パ社 アドルフ・マンジユウ・エリツサ・ランデイ主演
丸山定夫・千葉早智子主演
▲エノケンの青春醉虎傳 P・C・L

P・C・L映畫と高級洋畫
大人五〇 學生三〇

若草劇場

七月十三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午後一時半六時半
但三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獨시네・아레만즈社超特作映畫
歐洲第一의名歌手잔・키푸라氏
말타・엣겔트嬢主演

노래하자, 이밤을

때는봄여름, 포도방울에꽃피는시절, 여기는별빛처럼이는로맨틱한로로끄나온는집거온로맨스! 그대여들리는가? 아아! 요망한名曲의 메로듸,

◆獨逸로비쓰特作映畫
櫻草
안니온드라 푸리스・라스파 主演
때어젠스名作의映畫化, 華麗가리여하고고은映畫獨逸이나은佳作의한아

◆日活超特作映畫
大河內傳次郞主演
關の彌太ッペ ー(次週封切)ー

戀愛, 深夜의 벌(近日封切)아씨, 人形의 母性愛의 밤, 메로디가의 다빌, 百萬弗의 戀愛, 空中요나라 靑春, 새벽, 나의 行狀記, 情熱의 鳴曲, 어느 女子의 一生, 무엇 片道 普通, 鬥牛士, 靑春의 비다,

映畫殿堂 鐘路一 團成社

朝鮮內金融體系

朝鮮內銀行合同機運 一縣一行主義의 波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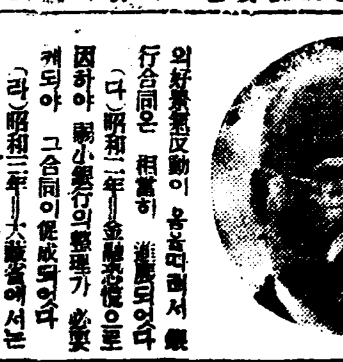
●……申泰瑚

오늘에 잇서 銀行合同의促進은 時勢가 바야흐로 要求하는 바 卽 日本內地의 地方銀行整理强化를 作하야 그波紋은 朝鮮內銀行統制에까지 미치고말것가티 보히는것이다 그러면 果然朝鮮內 銀行도 그整理 卽合同의促進에 [illegible] 朝鮮銀行界에 [illegible] 지로 가장 [illegible] 重且大한 問題의 하나로 등장되엿다.

×

그러면 朝鮮內의 銀行統制問題를 말함에잇서 먼저 日下 日本內地의 銀行統制問題가 어떠한 進行을 밟어왓고 또 그의强化를 [illegible] 가 어느곳에 잇슴을 [illegible] 가잇고 또는 이것이 [illegible] 順序로 될것이다 卽 첫재 日本內地의銀行統制에 對한 由來를 보자 이것은 朝鮮銀行界에서 말하는 바와 가티 日本內地에잇서 銀行統制問題가 잇서오기는 매우오래前부터 시작되엿것이다

(가)明治十五年—이때로부터



(나)歐洲大戰後—大正八九年 [illegible]

(다)昭和二年—金融恐慌으로因하야 弱小銀行의整理가 必要케되야 그合同이 促成되엇다

(라)昭和三年—大藏省에서는 新銀行法을 制定하야 이로써 [illegible]

×

그래서 高橋藏相은 이로써 日本內地의 銀行整理合同은 [illegible] 昭和五六年의 [illegible] 이 세계지만 [illegible]

이외가티 高橋藏相은 銀行整理合同이 充分히 되엿슴을 [illegible]

—(寫眞은 高橋前藏相)—

世界인플레熱再燃!

老大豫算提出 各國物價急騰

國際關係急迫、國防費激增

法貨危機一時解消

世界主要國의 今年度財政은 昨年度에比하야 顯著히 激增한바 國際關係는 더욱 急迫을告하야 各國間의對立이 深刻化함을 따라서 다시 追加豫算을提出하리라도 잇스므로 世界인플레熱이 더 急激하여간다 그러고 佛國의金本位危機가 一時的이라고 하지만 解消케되엿기때문으로 各國의物價는 一齊히 上向의步調로 變하엿는바 主要國都賣物價指數를 보면 다음과갓다

	英國	米國	獨逸
前年六月	八三·九	一〇八·八	一〇一·三
今年一月	八六·二	一〇八·八	一〇三·六
同 二月	八六·六	一〇九·〇	一〇三·六
同 三月	八六·六	一〇九·〇	一〇三·六
同 四月	八六·六	一〇九·六	一〇三·六
同 五月	八八·〇	一〇五·七	一〇三·八
同 六月	八九·六	一〇四·〇	一〇四·〇

그리고 今月에 드러서도 米國의好調가 顯著하고 英獨이 모두堅調이니 以上 繼續하야 이傾向을 보게될것이라고한다

方面에 瞬하야 期待를가지는터이라고한다

日本物價도昂騰

六月都賣指數一五一、四

【三菱經濟研究所調査】六月三十日現在 都賣物價總指數는 一五一·四로 六月二十日現在에比하야 〇·七의騰貴이고 五月三十日現在에比하면 一·七의 騰貴이엇다 國內商品、貿易商品別로보면 五月三十日現在에 比하야 前者는 二·七 後者는 一·五의 騰貴이고 이것을輸出 輸入商品別로보면 輸出商品은 一·五 輸入商品은 四·六의 大幅騰貴이엇다

(昭和六年十二月十日基準)

月日	六·三〇	六·二〇	五·三〇
都賣物價總指數	一五一·四	一五〇·七	一四九·七
國內商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貿易商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出商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商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物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食料品及嗜好品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被服原料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建築材料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工業原料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屬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燃料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對米爲替市勢	元·六五	元·六五	元·六五
同低落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對英爲替市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低落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賣物價總指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滿稅關檢査

協定成案을急行

十三、十四의兩日 總督府에서 열린 稅關長會議에 列席한 滿田滿洲國稅務司長, 稻富同事務官은 繼續滯京하야 總督府側과 朝鮮、滿洲稅關問題를 協議中이던바 十五日午後 財務局長室에서 林財務局長 村山稅務課長 其他關係官과 朝滿稅關檢査統一協定을 締結하는 橋梁이 順序로 進行하는것으로 [illegible] 全面的으로 相互의 關稅檢査統一을 圖하라는 것으로 今後 다시 兩者間에 協議하야 協定의 成案을 빨리하기로되엇다고한다

生保契約

二割의增加

昨年의 生命保險契約高는 各社가 今年現在가 昨年보다 大體二割가량의 增加이다 그러나 大體의 傾向은 京仁地方이 不振의狀態로 北鮮地方에 漸增의 大勢에잇서 生保會社에서는 이

로 從前의 免稅特典이 除外되나 所謂加工中에는 染色 捺染과 如한것外에는 明白히 整反도 加할것이 至當함으로 朝鮮織物協會에서는 總督府에 對하야

農村國策의樹立

農地法、負債整理法과 農業共濟 保險法其他

農相이首相에說明

【東京特電】米穀肥料의 二大農村關係法律이 實現한 今日 農村政策은 如何한 方面으로 轉換할가 注目되는터인데 島田農相은 省議에 關하야 農村政策의 一新을 두고 立案중인바 農地法의 制定、負債整理法의 制定、農業共濟保險法의 制定 其他 [illegible] 綜合的國策의 樹立에 努力하야 [illegible] 을 確立하고 十七日의 定例閣議前後에 廣田首相에게 文書로 [illegible] 다시 이에 [illegible] 加할것이라한다

朝銀持來 地金減少

市中取引도閑散

朝鮮銀行에 가저오는 地金은 激增되엿스나 最近은 農繁期關係로 漸減되고잇다 그러나 大口持入이 相當함으로 一日平均은 不變이오 大體賣金으로서 十貫持入이잇다 市中取引도 比較閑散이오 市勢는 十三圓十錢買 十三圓五錢賣로 오래동안 不變이다

▲白金暴騰 京城市中白金市勢는 賣十五圓、買十三圓五十錢으로 賣五十錢高、買一圓高이엇다

免稅陳情

人絹生地

朝鮮織物協會가

朝鮮內의 人絹染色加工業의 勃興을 따라 朝鮮內消費를 充足함에 止치안코 加工染色輸出을 行하는狀態인데 이輸出에 當하야 移入生地를 加工한後 輸反함으로

銀行會社人事異動

▲東拓=裡里支店 不詳事件에件하는 第二次異動은 十五日附로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다。 ▲命沙里院支店次長(支社金融課次席參事) 相良貞助▲命木浦支店勤務(沙里院支店金融主任) 內村信▲命沙里院支店勤務(裡里支店次長)(開島支店次長)吉岡一夫 ▲命京城支店次長(裡里支店長) 山田寬 ▲命京城支店勤務(京城支社事業主任) 近藤 [illegible] ▲命平壤支店勤務(平壤支店 金融主任) 佐柳信一▲命平壤支店次長 (京城支店次長)津田衛道 ▲命本社勤務(平壤支店次長) 和泉泰 ▲命本社勤務(京城支店金融主任) 光崎勇長) 猪股正一 ▲命開島支店次長(木浦支店次長) 猪股正一 命開島支店勤務(開島支店事業主任)上瀧鐵夫▲命釜山支店勤務 (釜山支店事業主任) 竹內忍 ▲命本店勤務次(沙里院支店次長)下出繁雄 ▲商銀=十五日附로支配人代理級의異動이잇섯다고 ▲命鍾路支店支配人代理 (裡里支店支配人代理) 稅所正幸▲命裡里支店支配人代理(裡里支店行員) 飯島敏夫▲命鍾路支店支配人代理(會寧支店支配人代理) 全主錫▲命會寧支店支配人代理 (鍾路支店支配人代理)山崎善市 ▲命本店勤務 (慶南支店支配人代理)吉田忠親

殖銀의五分債

全部借換一掃

殖銀에서는 過般以來 二次에亘하야 一次는 一千五百萬圓 二次는 二千萬圓을 各四分와一로殖産債券을 發行한바 前回의 一千五百萬圓으로 借換하엿스므로 五分債는 一掃케되엿다 그러고 이번의二千萬圓中 若干은 四分五厘債의 借換에 充當할터인데 四分五厘債는 据置期間이 지냇슴으로 이며 政府의五分利債借換未了와債券所持者의利益도 考慮하야 今後도 漸緩的으로 借換할方針을 取하지 안흘모양이라고한다

朝鮮人絹染色加工業의 生地移入免稅를 陳情하얏다는바 稅務當局에서는 至當한 바이 잇섯다

經濟界消息

取引停止

(七月十一日) 鉛商京城府元町一丁目 一二三番地 花軒支店 岡本光二

○富寧水力會社來月十日頃創立 東拓에서 設立計畫中인 富寧水力電氣株式會社(資本金一千萬圓)은 目下東京에서 設立準備中인데 來月十日頃까지創立總會를 열게될모양이며 本社는 富寧에두고 京城에事務所를 두기로한바 社長은目下人選中이라고

▲東銀=十五日附로 慶北支店長異動이 잇섯다고 ▲依願解職(慶北支店長取締役) [illegible]

三十年前에 每坪十八錢식 주고사든東拓現敷地를 每坪三百圓식에 處分하고 太平通에다 가 百五十萬圓으로 本社社屋을新築한다나

○

社屋敷地만의 利益이 어가리 꿈꾸지도 못할 程度인지라 全朝鮮서 그동안 본利益은 그얼마인고?

○

그리고도 無記로 굿굿하게 짤짤매기는 웬까닭 갓신히 記念復活을機로 社屋新築 해내보는세음인가?

商況 【十六日】

株式 買煽失敗 反落

前場先高後低 東京東新은 高價로 當地東新百三十六圓十錢에 一圓高寄이엇스나 昨後引보다 四圓七十錢에反落되고 四圓八十錢大引 三十錢低인 四圓八十四圓十錢 大新四十錢低 低인 七十七圓三十錢 日產六二十錢低인 三十二圓五十錢에 各各 大引되고 鐘新百五十九圓六十錢 朝新日產新二十五圓三十錢 朝石十九圓五十錢이엇섯다

▲朝新 三等 참 참 三等(引)

生絲供給過剩

米國景氣은 商品高가 勃興되야 매우 좋으나 景氣 人絹使用者는 과하의 商品이 되지안흘가 하는 念慮를 가지도록 안잇다。 그래서 生絲가 빗싸면 比較的低價의 人絹을 使用함으로 暫定되다。

◇

最近의 뉴욕市場에는 새로 등장한 生絲需要가 잇스나 뉴욕市場에서 今年生絲를 파는

重要商品界事情

世上에서는 三井側 買不足이라고 하는모양이나 實際에 안팔리므로 買收함이 적게되는것이라고……

後場低落

後場은 東京東新이 前引보다 三圓四十錢夫引 [illegible] 後場低落

東新 한때는 十三、四、五의 三日間百三十六圓까지 高價가잇고 倂倒이던니 今前寄는 六圓八十錢으로 新高價이고 六圓七十까지잇서 二日의 低價百二十六圓五十錢에서 十圓三十錢戾이고 나서 三圓三十錢에까지 三圓五十錢押이엇스며 三圓六十錢大引이엇다。十圓戾를 示現고나서二日以來처음으로 三圓押을보인이 市勢를 어떠케보아야 可할가?

十圓戾、三圓押

日產七十六圓七十錢에各低落大引 五十八圓三十錢 大新七十四圓丁 引、朝新三十二圓四十錢、鐘新百三 十四圓落后 低寄後三圓八十錢大 新前場低의 뒤를이어 東新百三 後場低落 後場은 東京東

株界前途打診

株界前途觀에 對하야서는 觀測이 區區하야 누구나 確見을 세우지못하는모양이니 即如左하다

▲强氣觀=低金利와 軍事的平和에 立脚한市勢는 庶政一新이 어찌되든지間에 軍事費膨脹絕對的인것만 생각하면 조흘것이다 軍需株는勿論 買根據에 動搖가 업고 東新도지금까지 暗雲에싸이어 晴天을보지못하얏다가 無押十圓戾를 示하얏스니 비록三圓押이 잇섯다드래도 人氣轉換의것에 틀님이업다 道標는 이미上으로確定된것이오 다만 時間的 緩急만남어잇스니 市勢를 逆行하야 實할수업다

▲弱氣觀=豫算編成은 이로부터 本舞이겟는데 歲入은 어림이스래도 歲出은 어떠케될지 모른다으로 增稅程度도 簡單히 一億圓內外라고 鄕讓安心할수업다 軍擴熱은 世界的임으로 軍部의 要求豫算을 削減키는 容易치안흘것이오 從하야 國際關係의緊張은 今後도 繼續될것이니 當分間 은赤是軍需株中心이겟스나 東新가튼 投機株는 시원스럽上市勢가難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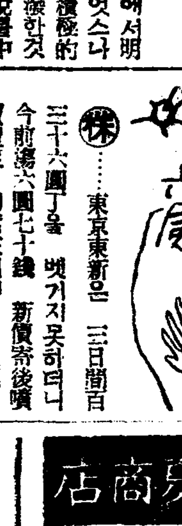
▲保合觀=人氣는 萎縮에서明朗으로 根本的으로一變되엿스나 아즉 實過反動程度로서 逡巡의것이 아니다 亦是軍需株中心으로 進出하기까지에 重點은 增稅률中心으로规敗革의 限界線如何에 달리엇스니 지금곳熱을내서사기는 時期가尙早인것갓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 三〇〇▲東滿重平 一三〇▲甕水港經新 三〇〇▲에라파이新 二〇〇▲도쿄지鐵業 三〇〇▲日滿 아루미 三〇〇▲大同電力新 三〇〇 ▲川崎造船 三〇〇 取引高(四〇枚)

運 投機買가 잇는모양이므로 目前的動搖는別問題로하고 지 今까지의갑스로 사지못하는 實需側이 投機와가튼 노끈갑세 살가 지금의 狀態로는 今年의生絲消費高가 相當히 줄것이나 이대로는 減產으로 도리어 낫게되는 結果가 될것 다。

◇



㊑……東京東新은 三日間百三十六圓丁을 벗기지못하더니 今前場六圓七十錢 新價寄後價寶로 期席三圓押 ▲人氣明朗化 大인푸레期待하나 이로써 東新高一巡反落의코-스이나 ▲三十億軍豫豆公債增發하고 國家統制力强化로金融 財閥의反國家的動向을 制壓하자는것이 陸軍의主張 ▲저株界建서 이것을어찌라보는고?

㊍……四十餘丁의 反落으로을하는市勢는 今朝에入하야 다시 頑强味를添한다 ▲그러나日本內地는 昨今晴天으로 氣溫이上昇하고 또 朝鮮은 南方의 豪雨와 北部의 暴雨로 當分反騰을招致함 材料는업다 ▲그러고 朝鮮內에保留된 政府米는 不遠한時日에 拂下될모양이니 此는 弱材의一助▲當地中限은 依然取組의 增減이업시 兩方이 持久戰을 繼續하고잇다그 決戰은 果何如?▲實需策의 實物은 最後一戰에 일으기까지 讓色이업시 버틸모양이나 두고보자

中部는赤土化

洛東江엔濁水

今年의 雨量은 고로지못하야 慶尙南北은 降雨洽足으로 豊作의 謳歌를 못하고 西北地方의稻作도 그다지悲觀狀態는 아니나 中部地方만은 依然早魃을繼續하야 凶作의 悲歌를불한다 昨今의 天候로보더라도 鏡山과如한곳에는 昨今兩日을 通하야 約三百미리에 達하는大雨

期米 軟派賣叩 瓦落

前場少强 昨後場阪地三十三圓五十錢止와共히 三十一圓四十九錢에 瀉을止하고 當市場은 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五十錢인 九丁反落을 瀉하고三十一圓四十九錢인 昨止同株으로反發을 聽한後 阪地六十一錢까지 返하엿다가 五十九錢에, 止瀉하야 三節四十九錢으로 五十六錢까지 昂騰하엿다가 結局五十一錢에 瀉을止하엿다

後場瓦落

後場은 三十一圓五十一錢에 同價始瀉後 軟派가 節節賣叩되어 五節三十五錢으로 二十七錢에 瓦落止瀉하다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一·二七	三三低
大阪期米	先限	三三·五〇	四五低
正租(仁川)一等			
一斤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三品FAQ	[illegible]	[illegible]

後場低落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聯盟】 國債는 買氣가 旺盛하고 賣物이 依然少하야 四十五錢高를 비롯하야 其他도 十錢乃至二十錢內外의 上伸이며 五錢乃至十錢이고 米貨債는 品薄關係로 六分半은一圓高 二圓川鐵乃至 五分半은二十錢高新高價를이루고 公債의 賣止와 金融의緩和로 實物의 賣注文은 一段한 緩和되었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九〇 ▲一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二回四分利 一〇一、九〇 ▲特貨四分利 九九、一〇

▲甲五分利 一〇一、二四 ▲第三五分利 一〇一、六六 ▲二八年 一〇一、六六 ▲一回四分 一〇一、六五 ▲五分利 一〇〇、八三 ▲佛貨四分半 九九、一五 ▲米貨六分半 一三三、一〇

中限戰의今後

賣方이勝利?

今中限은 仁川七月一日의 現狀으로 中場三十二圓四十七錢에 [illegible] 內地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各地正米

京城保合

仁川硬化

釜山保合

大邱焦付

群山硬化

木浦閑散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各地天候恢復의 本格的임으로 賣人氣가 助長되어 軟派追擊과 濟狀의 賣物이 잇서 下放이나 田中眞賣進으로 地場買

朝取期米賣買高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期米取組

朝取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在庫高

大阪市中在米高

各地正租市勢

大阪綿絲

大阪綿花

大阪人絹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외카고期米

金·國 十六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絲布市勢

國內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滿洲沖價

京城綿布

米株 京城 仁川 益盈 盈益 證券部 益盈商店

土金 分析 買賣 石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三一六番 振替京城一五一五四番

期米 福 仁川 吉村榮左工門商店

德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元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③3939 振替京城234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電九七四五番 振替京城二四一〇番 支店 全州府本町 電一五四番 兼委託販賣